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O(NNA

# Have thy tools ready. GOD will find thee work.

하나님이 쓰실만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찾아주실 것 입니다.





Dear Lord 주님,

From July 2022, 7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 ③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នុំនម្ន∙Tue
11
2022 JANUARY

#### 노아가 함을 저주하다

Noah cursed Ham

어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번제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생물을 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악을 노이와 맺으시며 그 증거로 무지게를 구름 사이에 보여주셨 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빛고 장든 자신의 모습을 목격 한 아들 '함'을 저주하여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하였습니다.

1 세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2 문상·창세기 9:20-27

3 통독·창세기 9장

6 20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sup>1</sup>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sup>22</sup>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 으로 나카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sup>23</sup>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 음처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 더라

<sup>24</sup>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 을 악고

<sup>25</sup>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 의 종이 되기를 워하노라하고

<sup>26</sup>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 안은 셈의 종이 되고

<sup>27</sup>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영더라

〈내지샘플〉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Noah, who worshipped God with burned offerings, was blessed by God to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God made a covenant with Noah to never again destroy living creatures with a flood and as proof showed the rainbow in the cloud. Noah was drunk with wine and fell asleep and his naked body was exposed to his son, Ham, whom Noah cursed to be slaves of his

月 Hymn 393 Great is Thy Faithfulness

ation • Genesis 9:20–27 Reading Han • Genesis 9

- 20 Noah began to be a man of the soil, and he planted a vine-
- <sup>21</sup> He drank of the wine and became drunk and lay uncovered in his tent. 22 And Ham, the father of Canaan, saw the nakedness of his
- father and told his two brothers outside. 23 Then Shem and Japheth took a garment, laid it on both their shoulders, and walked backward and covered the nakedness of their father. Their faces were turned backward,
- 24 When Noah awoke from his wine and knew what his youngest son had done to him,

and they did not see their father's nakedness.

- 25 he said, "Cursed be Canaan; a servant of servants shall he be to his brothers.
- 26 He also said,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sup>27</sup> May God enlarge Japheth, and let him dwell in the tents of Shem, and let Canaan be his servant."



#### ⑤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2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 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Pleasant Hill

#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처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③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①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목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oper for Churches & Pastos 앵커리지한안연합감리교회, 금원재(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하인호회, 하인교회 공동체를 위하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새해의 소망 VS 믿음 Hope and Faith in the New Year

2022년 새해의 첫 날 입니다. 2020년도 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의 첫 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팬데믹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재정적 상황 등, 과거 보다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요. 여러분도 새해를 향한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말씀"으로 참조하시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언약이자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업리, 뜻, 계확'이자, 사람들의 그것과는 분명 다름 것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은 나름의 기대와 소망을 중 품겠지만 만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업리, 뜻, 계획'을 먼저 찾고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응이란 창세기 1장1절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이 만음 위에서 싫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만응이란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새해의 소망을 구하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2022. The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changed our lifestyle but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still brings us new expectations and hope. We expect a better future than the past and make wishes like the end of the pandemic coming soon, good health for family members, good conditions at children's schools, good financial conditions for family, etc. I can guess that you all have y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for the new year. Did God also have His own expectations and hopes as He created the world with His "Word"?

God's Word by itself is the promise and the command that would be fulfilled with certainty. Therefore,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God, that is,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would clearly be different from those of human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we may have a myriad of our own expectations and hopes, but as believers we must first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of our Lord – 'His providence, will and plan' – because our faith is built on Genesis 1:1. Unless we seek and find the expectations and hopes in life based on our belief in the Word, 'God created the world,' our faith will eventually be shaken. I pray that we begin the new year today by seeking hope in the new year based on our faith in the Word.

22

####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 [기쁨의 언덕으로]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성경일독/말씀묵상

# 혼자서도문제없다

####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 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 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 이 어떻게 읽을까?

●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의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 마무리는 이렇게!

지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합니다!

#### ◀ 언제가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 ✔ 모임장소Tip!

→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 ●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②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2 July

07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3	<b>4</b> 시편 Psalm 78편 □	5 시편 Psalm 79-81편 □
10	<b>11</b> 시편 Psalm 92-97편 □	<b>12</b> 시편 Psalm 98-102편 □
17	<b>18</b> 시편 Psalm 109-112편□	19 시편 Psalm 113-118편□
24	<b>25</b> 시편 Psalm 126-132편 □	<b>26</b> 시편 Psalm 133-137편□
31		

WE	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b>1</b> 시편 Psalm 73-75편 □	<b>2</b> 시편 Psalm 76-77편 □
6	시편 Psalm	<b>7</b> 시편 Psalm	<b>8</b> 시편 Psalm	<b>9</b> 시편 Psalm
	82-83편 □	84-87편 □	88-89편 □	90-91편 □
13	시편 Psalm	<b>14</b> 시편 Psalm	15 시편 Psalm	16 시편 Psalm
	103-104편 □	105편 □	106편 □	107-108 편 □
20	시편 Psalm	21 시편 Psalm	<b>22</b> 시편 Psalm	23 시편 Psalm
	119:1-56 🗆	119:57-112 □	119:113-176 □	120-125편 □
27	시편 Psalm	<b>28</b> 시편 Psalm	<b>29</b> 시편 Psalm	시편 Psalm
	138-140편 🗆	141-143편 □	144-146편 □	147-150편 □
			06 June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작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수 있을 것이다.

#### 저자소개 앤드류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에 관한 것이다. 그가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 Chapter 2 겸손: 속죄함의 비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인간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뿌리내리고 자라야 할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역사했던 능력들이 오늘 날 우리의 삶 안에서도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삶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라 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다 스리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의 청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구속자(redeemer)로써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겸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천국에서나 그가 태어나셨을 때, 그의 삶, 죽음 그리고 그의 천국 보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그의 모든 것은 겸손 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본능에 심어주신 겸손입니다. 그의 인간을 향하신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 온유하심과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세 상에 오셔서 인간을 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야말로 예수 님임을 온전히 설명해 줍니다. 그가 천국보좌에 있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온유 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겸손은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가지, 잎 그리고 열매에 나타나야 합니다. 겸손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비밀이라면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일순위(top priority)에 두어 우리는 건강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겸손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3

겸손이 나무의 뿌리라는 것을 망각한 채로 연약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가져다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찾지 아니함으로써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 드리는 겸손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영광을 단호하게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님만 홀로 높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14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 시편 2 Psalms 2

#### 시편(Psalms)이라는 제목은 무슨 뜻인가요?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 '세페르 테힐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들의 책'이란 뜻입니다. '테힐림'(Tehillim-찬양들)은 하랄(halal)에서 나왔고, 할렐루야 (hallelujah-여호와를 찬양하라)도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성경의 'Psalms'와 한글성경의 '시편'(詩篇)이라는 제목은 헬라어 70인역 '프살모이'의 번역으로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 시편: 기도와 찬양, 예배의 노래

정통 유대교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매일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초대 교회도 그런 전통을 따라 시편을 예배와 기도생활에 사용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4:26; 에베소서 5:19; 골로새서 3:16; 야고보서 5:13는 시편(Psamls)이 초대교회의 예배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중세교회는 물론 개신교회에서도 주일마다 시편을 읽거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예배와 말씀묵상의 시간에도 매일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요한 전통이기도 합니다.

#### 진실한 대화-우리의 신앙고백, 우리의 그리스도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서도 그에 걸 맞는 시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 연로한 사람, 절망 적인 형편에 처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시편이 있는가 하면 젊음과 활력이 넘쳐흐르는 사람, 소망을 지닌 사람, 진실한 사람, 하 나님의 자녀로서 신뢰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감정이 표현된 시편도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너무나 풀이 죽어 소망의 기운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내용도 있고. 다른 시편은 한마디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언급도 없이 오로지 감사와 기쁨의 찬 양만 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죄인이 주 날개 밑, 주님이 거하시는 은밀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편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회중과 함께 온 갖 악기에 맞추어 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편도 있습니다. 모든 시편은 인간이 지닌 모든 문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높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신념, 우리의 능력과 승리-이 러한 고백은 메시아 - 그리스도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주님께서 오심 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영원한 의의 통치가 온 우주에 시작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에서의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의 주제는 우리의 신앙고 백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그분 의 신성(시 45:6; 110:1). 아들됨(시 2:7). 성육신(시 40:6, 7). 제사장직(시 110:4), 배반(시 41:9), 거절(시 118:22), 부활(시 16:9, 10), 승천(시 68:18) 등의 주제가 예언적 안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시편의 주제: 우리의 신앙고백

시편 기자는 다양한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 서 아래의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우주의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온유한 목자이십니다.

- 참된 믿음은 놀라운 기쁨을 직접 체험하고, 풍부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수 있게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예배할수 있습니다.
-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 그분 앞에 거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쫓겨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 간구과 감사는 함께 드려집니다. 기도와 찬송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 님께 축복을 구할 때,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복에 대하여 미리 감사하며, 간청하는 것들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우주 만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자연 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으므로,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찬양합니다.
- 정의와 공의의 실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실천입니다. 의로움과 정직을 실천하며,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들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 의-악하게 행함-는 고통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심판과 사망의 길로 우리를 가 게 합니다. 악인은 잠시 번영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매한 길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악행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어떤 시편은 강력한 선민사상, 시온주의적 민족주의를 보여주지만 다른 곳에서는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은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할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고난, 고통, 질병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는 교훈과 경고로 받아들여 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인생, 인류의 문제는 메시야의 오심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해결되어 집니다.

• 하나님 나라는 긍휼과 진리가 만나는 지점(시 85:10)에서 율법과 복음이 온전 하게 하나가 됨으로 이루어집니다.

#### 다섯 권의 책, 시편 – 시대순으로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분류되는데, 제1권은 1-41편, 제2권은 42-72편, 제3권은 73-89편, 제4권은 90-106편, 제5권은 107-150편입니다. 이 구분은 유대 랍비들이 모세 5경을 따라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학자들은 제1권은 다윗 사후 솔로몬에 의해, 제2권은 고라 자손에 의해, 제3권은 히스기야 시대의 아삽에 의해, 제4권과 5권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정리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유대 랍비들의 책, 탈무드는 '다윗과 10명의 장로들이 함께 시편을 기록했다' 고 전합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록은 모세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 에 걸쳐 기록되었고, 그중 50여 편은 저자가 확실하지 않고, 100여 편은 최소한 7명의 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150편 중 다윗의 시가 73편이나 되고, 저자가 불확실한 시편 중에 신약에서 다윗의 저작으로 소개된 (2, 95-96, 105편 등) 시편도 있어, 다윗이 시편 전체를 편집하거나 정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00년의 시간 동안 드려지고 기록된 기도시와 찬송시들은 여러 세대를 거쳐 예배용 혹은 성도들의 순례용 찬양과 기도로 묶여 현재의 형태로 묶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 아삽, 고라, 여두둔 - 성전 예배 음악의 지도자들

12편의 시편은 "아삽의"(le'asaph)라는 표제를 갖고 있어 그 저작권을 보여줍니다. (시 50, 73-83편) 하지만 다윗의 모든 시편이 그의 직접적인 저작권을 증명하기 보다 편집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의 찬양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아삽의 선지자요 작곡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대상 6:39; 대

하 29:30; 느 12:46). 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들 가운데 아삽 자손만이 유일하게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자로 기록되었다는 것도 이런 기록의 역사적 배경이 될 것입니다(스 2:41).

11편의 시는 "고라 자손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시 42, 44-49, 84, 85, 87, 88편). 영어성경(KJV) 중에 "고라 자손을 위한"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히브리 성경의 전치사는 "…의"라는 소유격으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소개되면서 동시에 "에스라의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표제도 갖고 있는데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며 사무엘의 손자로, 레위 지파고핫 가계에 속한 성전 음악의 지도자로 그의 시편으로 추정됩니다(대상 6:33; 15:17; 16:41, 42).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시편"으로 다윗 왕국의 멸망을 슬퍼하는 탄식기도이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왕상 4:31 참조).

시편 77편(과 시편 39, 62편)은 여두둔의 이름을 제목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역시 성전 음악의 지도자입니다(대상 16:41, 42). 그는 성전 음악의 편곡, 또는편집에 참여했을 텐데, 시편의 원저자이기 보다 여두둔이 작곡한 가락에 맞추어노래 부르도록 표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편 72, 127편에는 "솔로몬의"(lishlomoh, KJV '솔로몬을 위한') 시편이며,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lemosheh)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시편에는 표제가 없어 작자 불명으로 분류되지만 유대 랍비들은 에스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켈, 학개와 같은 인물들의 시편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 할렐루야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 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걸으며, 그리고 성전 예배 때에 불려졌던 시편입니다. 순례자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관광객은 환경과 배경

을 구경하며 걸어가지만 그 길과 여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신앙 인의 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길과 메시야, 그리스도의 길을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의 주인은 아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힘과 지혜를 다해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바로 이런 순례자들의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구경꾼, 관광객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넋두리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헌신과 결단이 담겨 있는 기도와 찬양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기위해 나아가는 예배자의 길이며, 시편은 예배자들의 기도며 찬양입니다.

시편 103, 107, 111-118, 135-136, 146-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등으로 시작하거나 끝나는 찬송시입니다. 할렐루야는 야훼(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모두하나님께 대한 찬송, 감사, 환희의 외침입니다. 성전 예배 중에 사회자와 회중이함께 낭독하거나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시편은 크게 다섯 권으로 분류되는데, 제1권은 1-41편, 제2권은 42-72편, 제3권은 73-89편, 제4권은 90-106편, 제5권은 107-150편입니다. 이 구분은 유대 랍비들이 모세5경을 따라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약학자들은 제1권은 다윗 사후 솔로몬에 의해, 제2권은 고라 자손에 의해, 제3권은 히스기야 시대의 아삽에 의해, 제4권과 5권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정리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봅니다.

#### 참고도서

구약개론(월터 브루그만/기독교문서선교회) 구약개론(구덕관/대한기독교서회) 뉴인터프리터스터디바이블(애빙돈) 해설관주성경전서(독일성서공회/대한기독교서회) 공동번역성서해설(일과놀이)

# agg·Fri

2022 July

# 정직과 선함을 포기하려다가 다시 마음을 잡다

I reconsider after almost giving up on honesty and goodnes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시편 73편은 시편 37편과 같은 고민을 하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깨닫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정의 로우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 ♬ 새322장(통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묵상·시편 73:1−3, 12−20

통독·시편 73-75편

- 1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 2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 였으니
- 3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 12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
- 13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 14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 15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 16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 한 고통이 되었더니
-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 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 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 20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 Reading Insight

Psalm 73 is the confession of a person who's experiencing the same trouble as the psalmist of Psalm 37. The psalmist's agony is that he cannot understand why the wicked prosper. Yet, he eventually understands. When he enters the temple of God, he understands God is righteous.

√ Hymn322 Gather Us in, Thou Love

Meditation • Psalm 73:1-3, 12-20

Reading Plan · Psalm 73-75

- <sup>1</sup> Truly God is good to Israel, to those who are pure in heart.
- <sup>2</sup> But as for me, my feet had almost stumbled, my steps had nearly slipped.
- <sup>3</sup> For I was envious of the arrogant when I saw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 12 Behold, these are the wicked; always at ease, they increase in riches.
- 13 All in vain have I kept my heart clean and washed my hands in innocence.
- 14 For all the day long I have been stricken and rebuked every morning.
- 15 If I had said, "I will speak thus," I would have betrayed the generation of your children.
- **16** But when I thought how to understand this, it seemed to me a wearisome task,
- 17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then I discerned their end
- 18 Truly you set them in slippery places; you make them fall to ruin
- 19 How they are destroyed in a moment, swept away utterly by terrors!
- **20** Like a dream when one awakes, O Lord, when you rouse yourself, you despise them as phantom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믿음을 저 버리고 미끄러질 뻔한 이유가 무엇 이라고 고백하나요? (3절) Why did the psalmist confess giving up the faith that God provides His goodness to the honest and the pure? (v.3)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 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 보니 알게 된다고 했나요? (20절)

Where does the psalmist enter to know the end of the wick-ed? (v.17)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형렬(GA)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When I Enter the Holy Temple, I Know What God Does...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1-2절).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도이처럼,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 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3절).

이 시편의 고백자가 그것을 깨달은 장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디일 것 같은가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자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아주신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 주일 그리고 매일 새벽예배에 나와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정말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시편을 고백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Truly God is good to Israel, to those who are pure in heart. But as for me, my feet had almost stumbled, my steps had nearly slipped" (vv.1-2). Even the faithful can slip like this psalmist. Yet, he understands the reason clearly. "For I was envious of the arrogant when I saw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v.3).

The psalmist tells us that it is in a certain place where he understands the very reason. Where is that place?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then I discerned their end" (v.17). No sooner than when the person who enters the temple of God and encounters the presence of God does he clearly know how the end of the wicked will be. So, it is more important that God recognizes those who stand firm in faith than anything else. It seems that the wicked dominate the world. And yet, God gives those faithful a faith that is unshakable even in any reality. Thus, I believe the place of worship is so precious that I could kneel to the Lord there on every Sunday as well as daily at dawn. While we hear the words, "If you are jealous, you lose," we are sympathetic with the heart of the person who confesses this Psalm.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처기드 Eirot Prov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E요일·Sat

2022 July

# 고난으로 지친 분들을 위한 회복의 찬송

The song for restoring the exhauste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77편의 기도자는 고난으로 지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적 없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복하게 됩니다.

#### ☐ 새150장(통135장) 갈보리 산 위에

#### 묵상•**시편 77:1**−11

통독·시편 76-77편

-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 <sup>2</sup>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 3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셀라)
- 4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 5내가 옛날 곧 지나가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 6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가구하기를
-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 실까,
- 8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 구히 폐하였는가,
- 9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셀라)
- 10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 손의 해
- 11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is exhausted from the suffering. It seems that his faith in God has disappeared completely and, yet, he was restored

√ Hymn150 The Old Rugged Cross

Meditation • Psalm 77:1-11

Reading Plan · Psalm 76-77

- <sup>1</sup> I cry aloud to God, aloud to God, and he will hear me.
- <sup>2</sup> In the day of my trouble I seek the Lord; in the night my hand is stretched out without wearying; my soul refuses to be comforted.
- 3 When I remember God, I moan; when I meditate, my spirit faints. Selah
- 4 You hold my eyelids open; I am so troubled that I cannot speak.
- <sup>5</sup> I consider the days of old, the years long ago.
- 6 I said,"Let me remember my song in the night; let me meditate in my heart." Then my spirit made a diligent search:
- 7 "Will the Lord spurn forever, and never again be favorable?
- 8 Has his steadfast love forever ceased? Are his promises at an end for all time?
- <sup>9</sup> Has God forgotten to be gracious? Has he in anger shut up his compassion?" Selah
- 10 Then I said, "I will appeal to this, to the years of the right hand of the Most High."
- 11 I will remember the deeds of the LORD; yes, I will remember your wonders of old.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지쳐 고난 당할 때, 기도자는 누구 를 찾았습니까? (2절) In his exhaustion from suffering, whom did the psalmist seek? (v.2)

지쳤던 기도자가 회복되는 전환점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의 기 도자는 어떻게 회복되었나요? (10절)

There seems to be a turning point at which this psalmist is restored. How does this happen? (v. 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송희섭(GA)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 남궁 전(G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바닥에 쓰러졌더니, 바닥을 반석 되게 하십니다

Falling on the Floor which Will Become the Foundation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7절). 우리들도 이렇게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참 담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럴 때가 있으셨나요?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겪는 일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알려진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었습니다. 팬데믹으로 너무 지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회할 힘이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일은 늘 드리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아라. 교우들을 바꾸려 하지도 말아라. 네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나를 바라보며 나를 섬겨라. 내가하리라."

"셀라(Selah)"(9절). 셀라는 음악 기호인데, 그 뜻은 "모든 것을 잠시 멈추다(Suspend/Pause)"라고 합니다. 지쳐 쓰러질 때, 우리가 엎드릴 곳이 하나님 앞이면 좋습니다. 하소연을 하고는 그냥 멈추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닥에 쓰러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곳을 반석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Will the Lord spurn forever, and never again be favorable?" (v.7). We also sometimes collapse from exhaustion. It looks as if God has forsaken us so that we abandon ourselves to miserable despair. Have you experienced such a moment? It can even happen to those with strong faith. It is a pitiful time called "the dark night of soul."

I have been in "the dark night of the soul" recently. I was too tired because of the pandemic. I could not feel the presence of God. I almost lost my strength for pastoral ministry. During such a miserable time, what I did was just maintain my place in worship. One day, after the dawn prayer service, I knelt before God and said, "God, I am here." At that moment, it was the voice of God that I heard in my heart saying, "Try nothing. Do not force the people to change. What you have to do is only one thing; look at me and serve me. I will do it."

"Shelah" (v.9) is a musical term meaning "suspend" or "pause." At the moment we break down from exhaustion, it is best for us to have a place before God. Appeal to God and be silent, and then God will speak. We will feel God who regards us as precious. Pray right there even if you fall down on the floor.

##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	가?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지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 회복의 5대 요소

안성욱 목사(참빛 중앙교회)

시편 107편은 절망에서 회복을 노래하는 희망의 시인데 이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 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 속에는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회복의 제1요소. 감사

시인은 시편 107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본시를 시작합니다. 사실 유대 인들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 원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속에 있어도 그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합니다.

#### 회복의 제2요소. 섭리

우리들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은 아마도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할 때는 많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지만 40년의 광야생활은 지긋지긋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생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광야생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적인 속성을 제거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 회복의 제3요소. 회개

우리들의 생활에서 겪게 되는 고난 중에는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10-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죄악의 길을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회복의 제4요소, 겸손

시편 107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목적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배후에 교만함이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별 어려움이 없기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하십시오. 겸손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겸손해야 사는 것입니다.

#### 회복의 제5요소, 기도

시편 107편 6, 19,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통 중에 했던 일이 기도입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고통에서 구워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펌프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끓어 올리는 펌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펌프질을 쉬고 있어서 삶에 필요한 물이 고갈되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펌프에 부울 한 바가지의 물이 아까워서 펌프질을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펌프질을 멈추면 올라오던 물이 끊어지 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sup>ваед</sup>·Моп

2022 July

# 강했던 나라, 에브라임의 멸망에 숨겨진 비밀

Ephraim once the strongest tribe of Israel, yet who falls in secret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78편은 후대에 전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강력했던 에브라임을 버리고 연약했던 유다를 택하신 비밀을 알립니다.

#### ♬ 새353장(통391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 묵상•**시편** 78:1-10

통독·시편 78편

- 1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 입지어다
- 2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을 드러내려 하니
- 3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 게 저한 바라
- 4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 에 전하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 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 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 6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 7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 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 8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 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 9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 10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 Reading Insight >

Psalm 78 says that he has something to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do not be stubborn and rebellious like your forefathers. Then the psalmist unleashes the secret of God who abandoned Ephraim and chose Judah instead.

√ Hymn353 Am I a Soldier of the Cross

#### Meditation • Psalm 78:1–10

Reading Plan • Psalm 78

- <sup>1</sup> Give ear, O my people, to my teaching; incline your ears to the words of my mouth!
- <sup>2</sup> I will open my mouth in a parable; I will utter dark sayings from of old,
- 3 things that we have heard and known, that our fathers have told us.
- 4 We will not hide them from their children, but tell to the coming generation the glorious deeds of the LORD, and his might, and the wonders that he has done.
- <sup>5</sup> He established a testimony in Jacob and appointed a law in Israel, which he commanded our fathers to teach to their children,
- 6 that the next generation might know them, the children yet unborn, and arise and tell them to their children,
- 7 so that they should set their hope in God and not forget the works of God, but keep his commandments;
- 8 and that they should not be like their fathers, a stubborn and rebellious generation, a generation whose heart was not steadfast, whose spirit was not faithful to God.
- **9** The Ephraimites, armed with the bow, turned back on the day of battle.
- 10 They did not keep God's covenant, but refused to walk according to his law.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5절) When establishing the order of the covenant with Jacob, what did God ask Israel? (v.5)

전쟁이 있었을 때, 에브라임은 무 장을 했지만 결국 어떤 행동을 보 였다고 했나요? (9절)

Even if Ephraim was ready for the war, what kind of behavior did they show? (v.9)

####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틀란타한인교회, 김세환(GA) 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신용철(G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The Church God Establishes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본심'을 짚어보게 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교회로 모이는지? 오늘 시편 기도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숨기지 않고(4절)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9절). 군대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오합지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군사들인지 짚어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는 이 질문에서 '우리들의 모습'이라 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짚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만 아는 사람은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데도 말입니다.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만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고 쓰실 만한 '성도'로 바꾸실 것입니다.

It is the real "intention of our heart" that today's Word of God asks us to reflect on. Why are you pursuing faith? Why do you gather at church? In today's scripture, the psalmist wants to honestly say why Israel collapsed. "The Ephraimites, armed with the bow, turned back on the day of battle" (v.9). Even though it had a form of military, Ephraim was called an undisciplined mob. Why?

There are so many challenges and problems in our life. It is a good time for us to check out what kind of soldiers of God we are. Now, what is the shape of ours who are called the people of Christ? I ask the question of "the shape of ours" but not "the shape of mine," because for too long, we have been focusing on "me." A person who focuses only on me is a "only me person." (In Korean, this word sounds similar to "scoundrel"—translator's view) Instead, God calls each one of us to make "we." I focus on "we" rather than "I," because "we" can be strong when "we" form community and church.

I think God has this question for us: "Today, are we on the way to build 'we' which God desires us to do?" When we build the "church" which God wants us to set up, we will be blessed and transformed into useful "saints" by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ฐชล 2 · Tue 05

2022 July

### 진정성 있는 회개

Sincere repentanc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예루살렘이 멸망 당하고 나서 기도자는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달라는 가구이지만 먼저 기도자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 ♬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 묵상·**시편** 79:1-13

통독·시편 79-81편

- 1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 나이다
- 2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 3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 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 4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 5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 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 6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 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 7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 8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 9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 10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 주소서
- 11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 12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 13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 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e praying man prays. It is a request for restoration, but first, there is something that the one who prays realizes.

#### ♬ Hymn300 Just When I Am Disheartened

#### Meditation • Psalm 79:1–13

Reading Plan • Psalm 79–81

- <sup>1</sup> O God, the nations have come into your inheritance; they have defiled your holy temple; they have laid Jerusalem in ruins.
- <sup>2</sup> They have given the bodies of your servants to the birds of the heavens for food, the flesh of your faithful to the beasts of the earth.
- <sup>3</sup> They have poured out their blood like water all around Jerusalem, and there was no one to bury them.
- 4 We have become a taunt to our neighbors, mocked and derided by those around us.
- <sup>5</sup> How long, O LORD? Will you be angry forever? Will your jealousy burn like fire?
- 6 Pour out your anger on the nations that do not know you, and on the kingdoms that do not call upon your name!
- 7 For they have devoured Jacob and laid waste his habitation.
- <sup>8</sup> Do not remember against us our former iniquities; let your compassion come speedily to meet us, for we are brought very low.
- 9 Help us, O God of our salvation, for the glory of your name; deliver us, and atone for our sins, for your name's sake!
- 10 Why should the nations say, "Where is their God?" Let the avenging of the outpoured blood of your servants be known among the nations before our eyes!
- 11 Let the groans of the prisoners come before you; according to your great power, preserve those doomed to die!
- 12 Return sevenfold into the lap of our neighbors the taunts with which they have taunted you, O Lord!
- 13 But we your people, the sheep of your pasture, will give thanks to you forev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ill recount your prais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편 기도자는 멸망 당한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다고 했나요? (4점)

The one who prays in Psalm knows that he and his people are destroyed. How do their neighbors view them? (v.4)

기도자는 예루살렘에게 누가 멸망을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5절)

Who does he think allowed Jerusalem to be destroyed? (v.5)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서정일(GA) 트리니티한인교회, 김경곤(G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회개하는 사람, 희망의 사람

A Person of Repentance, a Person of Hope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 거리가 되었나이다"(4절).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탄식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구절에서 은혜를 느끼게 하는지 곰곰 이 생각하게 됩니다. 조롱과 조소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마음인데 말입니 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기에 주변 이웃 사람들과 민 족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탄식은 오히려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 을 자각한 증거인 것입니다. 시편 기도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 자존의식이 발독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편 기도자처럼 민족이 멸망당하는 참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의식을 갖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쓰실 것입니다. 진심, 진정성 있는 회개는 항상 희망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 마지막 지파로 남아있던 유다 족속의 멸망은 그런 면에서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 멸망을 회개의 기회로 삼은 유다 민족에게 고마 운 마음이 듭니다. 거듭났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조롱을 받고 있나요? 은혜의 계기, 거듭나는 갱신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e have become a taunt to our neighbors, mocked and derided by those around us" (v.4). These are words lamenting that they are now being ridiculed. However, these words reveal God's blessing. They make us contemplate on why God has allowed us to realize His blessing when these words describe scorn and derision that everyone wants to avoid. Since God originally made us precious, the fact that we are ridiculed by our neighbors and others allows us to realize that we are in fact precious. In the heart of the one who prays in Psalm, the sense of self–esteem as God's child has been activated.

We go through many situations in our lives. Sometimes things work out, but there are many occasions when things do not turn out the way we want. Perhaps, we might experience our people being destroyed, just like the one who prays in Psalm has experienced. What can we do to stand up again after these unfortunate situations? Since God has provided us with self-esteem that we are His children, God will raise us again if we repent. Sincere repentance is always our door to hope.

Therefore, the destruction of the tribe of Judah, which remained the last tribe among God's people, was a blessing in disguise. I am grateful for those people who have used that time of devastation as an opportunity to repent. They were born again. What kind of derision are we facing today? I hope that we can stay thankful by believing that God has given us an opportunity for us to repent and be born again.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ABI·Wed

2022 July

# 하늘에서도 법정을 여시는 하나님

God opens up his court in heaven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하나님께서 신들의 법정에서 신들을 모아 놓고 재판을 합니다. 사람들을 재판하는 신들도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신들도 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헤아려 봅시다.

#### ♬ 새454장(통508장) 주와 같이 되기를

#### 묵상·시편 82:1-8

통독·시편 82-83편

- 1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 2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셀라)
- 3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 4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 질지니라 하시는도다
-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 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 6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 라 하였으나
- 7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같이 넘어 지리로다
- 8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God gathers the gods and judges them in the court of gods. The gods who judge people will also be judged by God. Let us consider why God judges even the gods that judge people.

♬ Hymn454 More Like Jesus Would I Be

#### Meditation • Psalm 82:1–8

Reading Plan • Psalm 82-83

- <sup>1</sup> God has taken his place in the divine council; in the midst of the gods he holds judgment:
- 2 "How long will you judge unjustly and show partiality to the wicked? Selah
- **3** Give justice to the weak and the fatherless; maintain the right of the afflicted and the destitute.
- 4 Rescue the weak and the needy; deliver them from the hand of the wicked "
- <sup>5</sup> They have neither knowledge nor understanding, they walk about in darkness; all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shaken.
- 6 I said, "You are gods, sons of the Most High, all of you;
- 7 nevertheless, like men you shall die, and fall like any prince."
- 8 Arise, O God, judge the earth; for you shall inherit all the nations!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늘의 신들에게 주신 직무는 무엇인 가요? (3-4절)

What is the task God has given to the heavenly gods in God's court? (vv.3-4)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나요? (7절)

What is God going to do with the gods who have not performed their roles properly? (v.7)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해밀턴밀한인교회, 정찬응(GA) 갈보리연합감리교회, 남규우(H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공평케 하시는 하늘의 법정

Fairness in God's Court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2절).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 공평하게 재판하지 못하는 신들에게 이제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지 않고 또 억울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공의을 베풀지 않았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나무라십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속두리째 흔들렸다"(5절).

재판을 잘못하면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겠답니다. 너희가 신들이었지만, 이젠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7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으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마 7:2). The God of accountability, 남을 재판하는 신들에게도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신 것인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 받지 않고 판단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오만해지면 남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모두를 겸손케 하십니다. 겸손해지면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믿음 생활이 가치 있는 길입니다.

"How long will you judge unjustly and show partiality to the wicked?" (v.2). God says that he will now hold the gods accountable for failing to judge fairly in the Heavenly Court. He rebukes those gods who do not defend the poor, the fatherless, the oppressed, the needy, and those who know nothing. "They have neither knowledge nor understanding, they walk about in darkness; all the foundations of the earth are shaken" (v.5).

God clearly states that the foundation of the earth will be shaken if they make errors in their judgments. Also, God will definitely hold them accountable. Even though they were gods, God says that "nevertheless, like men you shall die, and fall like any prince" (v.7). Since God of accountability has led us to faith, we feel reassured. Jesus also said, "For with the judgment you pronounce you will be judged, an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Matt 7:2). We are thankful that God holds those gods accountable as well.

Let us consider why God holds them accountable. God does not let anyone else judge without being judged as well. If we judge others without getting judged, we become arrogant. When we are arrogant, we do not respect others. God humbles us all, whether it be gods or people. When He humbles us, we realize how precious each other is and continue to build God's kingdom through faith; thus, leading us to a worthy path.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022 July

# 포로에서 돌아와 새 나라의 꿈을 기도하다

Returning from captivity, praying for the dream of a new country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나라, 패망하지 않는 나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시편기도자는 다시 타락하지 않을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네 개의 기둥이 되는 중요한 원칙을 전하십니다.

#### ቭ 새149장(통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묵상·**시편** 85:1-13

통독·시편 84-87편

- 1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 2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 나이다(셀라)
- 3주의모든분노를거두시며주의진노를돌이키셨나이다
- 4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 5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 이까
- 6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 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 7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 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 8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 9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 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 10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 으며
- 11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 12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 13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God brings the Israelites back from captivity. How can they create a country that starts again, a country that does not fall? The psalmist prays to God to make a world that will never fall again. In this Scripture, God presents an important principle of the four pillars.

☐ Hymn149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 Meditation • Psalm 85:1-13

Reading Plan • Psalm 84–87

- <sup>1</sup> LORD, you were favorable to your land; you restored the fortunes of Jacob.
- <sup>2</sup> You forgave the iniquity of your people; you covered all their sin. Selah
- <sup>3</sup> You withdrew all your wrath; you turned from your hot anger.
- 4 Restore us again, O God of our salvation, and put away your indignation toward us!
- 5 Will you be angry with us forever? Will you prolong your anger to all generations?
- 6 Will you not revive us again, that your people may rejoice in you?
- 7 Show us your steadfast love, O LORD, and grant us your salvation.
- 8 Let me hear what God the LORD will speak, for he will speak peace to his people, to his saints; but let them not turn back to folly.
- Surely his salvation is near to those who fear him, that glory may dwell in our land.
- 10 Steadfast love and faithfulness meet; righteousness and peace kiss each other.
- 11 Faithfulness springs up from the ground, and righteousness looks down from the sky.
- 12 Yes, the LORD will give what is good, and our land will yield its increase.
- 13 Righteousness will go before him and make his footsteps a way.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시편 기도자는 다 시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구합니 다. 먼저 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8절)

The psalmist returning from captivity asks for a kingdom that will never fall again. What did he ask first? (v.8)

참된 구원의 나라, 구원은 어떤 사 람에게 가까이 있다고 했나요? (9절)

What kind of person does the Bible say is near salvation? (v.9)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감람연합감리교회, 이영성(HI)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H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의 네 기둥

The Four Pillars of the Church God Blesses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10절).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네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함을 배웁니다. 히브리어와 곁들여 뜻을 풀어봅니다. 첫째 기둥은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그 뜻은, 부족해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무조건 덮어준다고 되나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기둥을 제시합니다. "진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입니다. 히브리어 "아멘"과 같은 말뿌리를 가졌습니다. 그 뜻은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정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데크"입니다. 옳다, 바르다, 의롭다는 뜻입니다. '정의'란 말엔 공평하다(even 또는 just)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10절은 이를 분명히 합니다.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억울함이 없도록 하니, 세상이 평화로와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둥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말인데, "믿을만한 친구 같아 맘 놓고 지낼 수 있으니, '든든한 게, 참 좋구나!'"라고 그 뜻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기둥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풀어보면, 친구처럼 맘 놓을 수 있을 만큼 든든하고 좋으니 서로 제 것 챙기지 않고 넉넉해집니다(샬롬). 그래서 공평하며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쩨데크). 그렇게 하다 보니 누구나 "아멘" 하며 공감하는 기준이 세워지고(에메트), 그리고 기준에 맞춰 부족함을 알고 있으니 '부족해도 덮어주고 싶다(헤세드)'는 마음이 서로에게 넘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In verse 10 we learn that four pillars need to be erected. Let's explain the meaning with Hebrew. The first pillar is "love." The Hebrew word is "hesed." It means that even if it is insufficient, it is a heart that covers it. But does it mean that everything is covered unconditionally? What do you need? So, God presents the second pillar. It is "truth." In Hebrew, it is "Emeth." It has the same root as the Hebrew word "amen." It means that there is a reliable basis or that there is a clear "standard" that can be recognized by anyone.

The third pillar is "justice." In Hebrew, it is "tsedeq." It means justice, righteousness, or fairness. The word "justice" hides the meaning of being fair (even or just). Verse 10 makes this clear. "Justice kisses peace." When there is no injustice, the world will be at peace. So, the fourth pillar is "peace". The word "shalom," which we know well, seems to be able to translate its meaning by saying, "It's like a trustworthy friend, so you can get along with your mind."

If you understand the four pillars in the reverse order, they are strong enough to put your mind at ease because they are like friends, and you will be rich without. So, it is fair and there is no unfairness (tsedeq). Then, a standard of empathy is established by saying "Amen" (emeth), and finally, since we know that we are lacking according to the standard, we overflow with feelings of 'I want to cover even if it's not enough (hesed)'. However, these four things come directly from God. That is why the psalmist who returned from captivity praises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abel·fri

2022 July

# 멸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다

Praying on the spot of the destruction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 시편은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유대 왕국의 멸망 속에서 드리는 외침의 기도입니다. 멸망의 잿더미에서 치욕을 절감하는 기도자는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 ♬ 새585장(통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묵상·**시편 89:19**−52

통독·시편 88-89편

- 19 오래 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 20나는 내 종 다 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었다.
- 21 내손이 그를붙들어주고, 내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 22원수들이 그를 이겨 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 23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 24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겠다.
- 25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 26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 27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 28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 29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 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다할 때까지 지켜 주겠다.
- 30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 31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 32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 33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 34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 35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 36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 37저 달처럼, 구름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셀라)
- 38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 39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 40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 41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 42대적들의 오른손을 치켜올려 주셔서, 원수들만 기뻐서 날뛰게 하셨습니다.
- 43 또 그의 칼날을 무디게 하셨으며, 전쟁터에서 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 44그의 영광을 끝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 45주님은 또한 그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셀라)
- 46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 47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여 주셨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 48산 사람치고 어느 누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제 목숨을 스올의 손 아귀에서 건져낼수 있겠습니까?(셀라)
- 49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 습니까?
- 50주님,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뭇 민족이 안겨 준 치욕이 내가 슴 속에 사무칩니다.
- 51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 52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Read this Psalm starting from the end. It was written in the midst of the destruction of the kingdom of Judah. The Psalm gives us a clear message of where to find hope when we are experiencing times of powerlessness and despair.

#### ☐ Hymn585 A Mighty Fortress is Our God

#### Meditation • Psalm 89:19-52

Reading Plan • Psalm 88–89

- 19 Of old you spoke in a vision to your godly one, and said: "I have granted help to one who is mighty; I have exalted one chosen from the people.
- 20 I have found David, my servant; with my holy oil I have anointed him,
- 21 so that my hand shall be established with him; my arm also shall strengthen him.
- 22 The enemy shall not outwit him; the wicked shall not humble him.
- 23 I will crush his foes before him and strike down those who hate him.
- 24 My faithfulness and my steadfast love shall be with him, and in my name shall his horn be exalted.
- 25 I will set his hand on the sea and his right hand on the rivers.
- 26 He shall cry to me, 'You are my Father, my God, and the Rock of my salvation.'
- 27 And I will make him the firstborn, the highest of the kings of the earth.
- 28 My steadfast love I will keep for him forever, and my covenant will stand firm for him.
- 29 I will establish his offspring forever and his throne as the days of the heavens.
- 30 If his children forsake my law and do not walk according to my rules,
- 31 if they violate my statutes and do not keep my commandments,
- 32 then I will punish their transgression with the rod and their iniquity with stripes,
- 33 but I will not remove from him my steadfast love or be false to my faithfulness.
- 34 I will not violate my covenant or alter the word that went forth from my lips.
- 35 Once for all I have sworn by my holiness; I will not lie to David.
- 36 His offspring shall endure forever, his throne as long as the sun before me.
- 37 Like the moon it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a faithful witness in the skies." Selah
- 38 But now you have cast off and rejected; you are full of wrath against your anointed.
- 39 You have renounced the covenant with your servant; you have defiled his crown in the dust.
- 40 You have breached all his walls; you have laid his strongholds in ruins.
- 41 All who pass by plunder him; he has become the scorn of his neighbors.
- 42 You have exalted the right hand of his foes; you have made all his enemies rejoice.
- 43 You have also turned back the edge of his sword, and you have not made him stand in battle.
- 44 You have made his splendor to cease and cast his throne to the ground.
- 45 You have cut short the days of his youth; you have covered him with shame. Selah
- 46 How long, O LORD? Will you hide yourself forever? How long will your wrath burn like fire?
- 47 Remember how short my time is! For what vanity you have created all the children of man!
- 48 What man can live and never see death? Who can deliver his soul from the power of Sheol? Selah
- 49 Lord, where is your steadfast love of old, which by your faithfulness you swore to David?
- 50 Remember, O Lord, how your servants are mocked, and how I bear in my heart the insults of all the many nations,
- 51 with which your enemies mock, O LORD, with which they mock the footsteps of your anointed.
- 52 Blessed be the LORD forever! Amen and Amen.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멸망 당한 민족의 치욕을 절감하는 이 시편의 기도자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의 끝을 어떻게 맺고 있나요? (52절)

How does the psalmist end his prayer when we felt the shame of a nation which was totally destroyed? (v.52)

기도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서 그 마음에 기억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19절)

What did God remind the psalmist to do while he prayed? (v.19)

####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최현규(HI) 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오대연(H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부끄러움, 치욕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There is hope for those who turn to God in times of trouble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 니다"(1절). 그런데, 끝까지 읽으며 함께 기도를 따라가다 보니 이 기도자가 선 자리를 알 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40절). 유다 민 족의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겪는 현장도 비슷합니다. 사업으로, 아니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의 일들, 마음이 겪는 폐허의 경험들. 그런데 이 시편 기도자는 기도의 끝 을 이렇게 맺습니다.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을 한 번도 아 니고 두 번이나 할 만큼 힘을 준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못 민족이 안겨 준 치욕이 내 가 숨속에 사무칩니다"(50절). 이 기도자는 치욕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수고 하였지만 낚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어부들에게 말하지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눅 5:4).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맞닥뜨리기에 창피해서 일부러 안 그런 척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건드려도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서 욱하며 뚜껑이 열리기도 합니다. 치욕을 치욕으로,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절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19절). 오늘 하나님께서 치욕을 치욕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할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Psalm 89 starts with praise. Verse 1 says, "I will sing of the Lord's great love forever." However, if you continue reading the psalm, you realize the psalmist's precarious position. In verse 40, "You have broken through all his walls and reduced his strongholds to ruins," we see the total destruction of Judah (nation and tribe). Today, Christians can experience similar situations when we struggle with business, family matters, marital issues, inner conflicts, as well as mental and emotional struggles. Still, the psalmist ends the prayer in verse 52, "Praise be to the Lord forever! Amen and Amen." The psalmist exclaims "Amen" not once, but twice. We can find hope and strength when we turn to God in our most difficult times.

Consider verse 50, "Remember, Lord, how your servant has been mocked, how I bear in my heart the taunts of all the nations." The psalmist experienced deep shame and humiliation. Jesus' disciples also experienced times of pain and hardship. After fishing all night, they returned home with empty nets. They were tired and discouraged. When Jesus met them, he called them to "Put out into deep water, and let down the nets for a catch." Consider Jesus' words. Jesus didn't call them to cast their nets into shallow waters, but deep waters. When they humbled themselves and trusted the Lord, even in the midst of hardship, they caught more fish than they could handle.

Sometimes, we encounter difficult situations. There are times when we try to avoid or run away from our troubles. Since they make us feel ashamed and vulnerable, we pretend that we are okay and can handle it by ourselves. However, pride is like a house of cards. When we reach our limits, we are bound to tumble and fall.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 Lord desires humble hearts. When we reach our limits, we learn to rely on God's strength. Listen to the words of today's scripture in verse 19, "I have bestowed strength on a warrior; I have raised up a young man from among the people." I pray that God would strengthen you in your times of trouble and weakness. What are the struggles you need to confess and turn over to the Lor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E요일·Sat

2022 July

# 우리를 살리는 신앙의 고백

Faith confession that will bring us lif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공명됩니다.

#### ♬ 새249장(통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 묵상·시편 91:1-16

통독·시편 90-91편

- 1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 2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 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 3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 4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 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 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 5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 6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염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 려워하지 말아라.
- 7네 왼쪽에서 천 명이 넘어지고, 네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져도, 네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 8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9네가 주님을 네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 10 네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다.
- 11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 12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 13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 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 14(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 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 주겠다.
- 15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 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 16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 주겠다."

This Psalm is divided into two parts. One is our confession to God and the other part is God's response to our confession.

₹ Hymn249 Come, We That Love the Lord

#### Meditation • Psalm 91:1-16

Reading Plan • Psalm 90-91

- <sup>1</sup> He who dwells in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will abide 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 <sup>2</sup> I will say to the LORD,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whom I trust."
- <sup>3</sup> For he will deliver you from the snare of the fowler and from the deadly pestilence.
- <sup>4</sup> He will cover you with his pinions, and under his wings you will find refuge; his faithfulness is a shield and buckler.
- <sup>5</sup> You will not fear the terror of the night, nor the arrow that flies by day,
- 6 nor the pestilence that stalks in darkness, nor the destruction that wastes at noonday.
- <sup>7</sup> A thousand may fall at your side, ten thousand at your right hand, but it will not come near you.
- 8 You will only look with your eyes and see the recompense of the wicked.
- 9 Because you have made the LORD your dwelling placethe Most High, who is my refuge--
- 10 no evil shall be allowed to befall you, no plague come near your tent.
- 11 For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in all your ways.
- 12 On their hands they will bear you up, lest you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 13 You will tread on the lion and the adder; the young lion and the serpent you will trample underfoot.
- 14 "Because he holds fast to me in love, I will deliver him; I will protect him, because he knows my name.
- 15 When he calls to me,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I will rescue him and honor him.
- **16** With long life I will satisfy him and show him my salvation."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을 누구 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2절) What does the psalmist declare to be true about God? (v.2)

하나님은 이 고백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요? (14-16절) How does God respond to the psalmist's confession? (vv.14-16)

####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HI) 올리브연합감리교회, 김배선(H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신앙고백, 우리도 해 보면 좋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요즈음 교회의 신앙고백을 박물관에서나 찾는 오래된 '고물'처럼 생각하고 합니다. 현대적 예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고백을 하는 크리스찬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2절).

이런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 딸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빠, 아빠는 나의 피난처야. 아빠, 아빠는 나의 요새야. 아빠, 나는 아빠를 의지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딸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이고마워서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응, 우리 딸! 뭐 필요한 것 없어. 아빠한테 말만 해. 다 해줄게. 이리 와 아빠가 꼭 안아 줄게."

작년부터, 우리 교회 예배에서 "주기도문"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설교 전에 성경을 읽고 난 후 성도들과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is is the Word of God."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s be to God!" 기도하다가 저는 때로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도자의 고백을 우리도 신실한 마음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These days, people consider "creeds (confessions of faith)" as antiquated relics. We assume that they do not fit our modern–day styles of worship. Christians who confess their faith are labeled as outdated and old. However, the writer of Psalm 91 clearly proclaims faith in God. Verse 2 says, "I will say of the Lord, 'He is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whom I trust."

Consider this question – if my child told me, "Daddy, you are my refuge and my fortress, I trust in you, dad," how do you think I will respond? Of course, I will affirm my child's trust and faith. I will encourage my child to always remember and treasure these truths. I will hug my child and hold my child close.

A year ago, my church started to recite "The Apostles' Creed" along with "The Lord's Prayer" during worship services. When we read the Scripture, we are invited to share in the responsive liturgy, "This is the word of God," "Thanks be to God." These words have deepened our faith and blessed our times of worship.

In my personal prayers, I say, "My God, thank you so much. I really love you, Lord. Thank you!" Today, I invite you to follow the example of the Psalmist. With sincere hearts, let us confess our faith together, "God, you are my strength and my refuge. I will put my trust in you!" How do you feel? When we call upon the name of God, we can experience the intimate and gracious love of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10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상용 목사(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71)

고난(苦難)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실 하나는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자기 문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자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속회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 영 맞지를 않았습니다. 7명 정도가 모여서 찬송을 불렀는데 한 사람이 아주 틀리게 불렀습니다. 게다가 그분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할머니들도 이 사람을 다 따라가서 모두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찬송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음이 다 틀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도 알고 있었구나. 자기 음이 틀린 것을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가 틀리게 불렀는데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모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자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너를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다리 부러진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눈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당해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나밖에 몰랐는 데 병에 걸리니까 세상에 병든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어떤 공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땅에서도 일을 하고 건물 꼭대기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연장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연장 좀 올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공사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도무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로 얘기를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하면, 조그만 나무토막을 아래로 던졌습니다. 물론 맞아도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나무토막이었습니다. 그나무토막이 머리를 툭 치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아야" 하면서 위를 올려보았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나무토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위를 좀 보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나좀 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땅만 보는 인생에게 하늘을 좀 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C. S. 루이스는 말하길,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를 좀 봐.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빠서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올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는 법인데,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물어보면 백이면 백, 고난과 눈물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이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저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멘."

# 월요일·Mon

2022 July

#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Call on god's nam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이 시편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자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지 따라해 봅시다.

#### ♬ 새565장(통300장) 예수께로 가면

#### 묵상·시편 92:1-15

통독·시편 92-97편

- 1-3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 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
- 4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 5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 6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 하나이다
- 7 악인들은 풀 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 할지라도 영워히 멸망하리이다
- 8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 9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 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흩어지리이다
- 10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 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 11 내 원수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 12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 13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 14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 청하니
- 15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 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This Psalm starts with the Psalmist calling God, "O Most High" (v.1), and then continuing on to express his heart for God. Let us follow his example to see what kind of heart God has poured out for this psalmist.

#### √ Hymn565 If I Come to Jesus

#### Meditation • Psalm 92:1–15

Reading Plan • Psalm 92-97

- <sup>1</sup> It is good to give thanks to the LORD, to sing praises to your name, O Most High;
- 2 to declare your steadfast love in the morning, and your faithfulness by night,
- 3 to the music of the lute and the harp, to the melody of the lyre.
- <sup>4</sup> For you, O LORD, have made me glad by your work; at the works of your hands I sing for joy.
- <sup>5</sup> How great are your works, O LORD! Your thoughts are very deep!
- 6 The stupid man cannot know; the fool cannot understand this:
- 7 that though the wicked sprout like grass and all evildoers flourish, they are doomed to destruction forever;
- 8 but you, O LORD, are on high forever.
- **9** For behold, your enemies, O LORD, for behold, your enemies shall perish; all evildoers shall be scattered.
- <sup>10</sup> But you have exalted my horn like that of the wild ox; you have poured over me fresh oil.
- 11 My eyes have seen the downfall of my enemies; my ears have heard the doom of my evil assailants.
- 12 The righteous flourish like the palm tree and grow like a cedar in Lebanon.
- 13 They are planted in the house of the LORD; they flourish in the courts of our God.
- 14 They still bear fruit in old age; they are ever full of sap and green.
- 15 to declare that the LORD is upright; he is my rock, and there is no unrighteousness in him.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이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여호와여" 등등 네 곳(1, 4, 5, 9절)에서 반복하여 부르는데 9절까지 이 시편을 따라 똑같이 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 게 느껴지시나요?

This psalmist repeatedly calls on God's name in verses 1, 4, 5, and 9. If you follow this example, how would you feel about God?

1절에서 3절까지 이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을 느끼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무엇이라고 했나요? (1~3절)

What words does the psalmist use to call on God? (vv.1-3)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병훈(IA)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TBS(I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난, 하나님이 참 좋아요

I Truly Love the Lord!

"가장 높으신 하나님!"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듯이, "날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만 하지 않고, 두 번 더 같은 어조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좋아요." "피아노 치면서 주님께 노래하니 참 좋네요."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5절)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는데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7절)라고,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11절)라고 고백하게 한니다

믿음 생활이 답답하고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이 시편 기도자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실 때도 전 참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생각으로, 지식으로, 고상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너무 딱딱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마음을 쉽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O Most High!" (v.1) – The psalmist calls upon God's name and declares his trust in God. The psalmist does not simply say, "Give me this," or "Help me, God." Instead, the psalmist says, "It is good to praise the Lord and make music to His name." This is affirmed not just once, but again in the next verse, as the psalmist proclaims God's love in the morning and God's faithfulness at night.

Listen to the psalmist's words of gratitude in verse 5, "How great are Your works, Lord, how profound Your thoughts!" As the psalmist begins with this personal confession of love, the Psalmist is tuned into the heart of God, which comforts us in our time of trouble, as well as when we are confronted by our adversaries. The Psalmist confesses confidently in verse 7, "Though the wicked spring up like grass and all evildoers flourish, they will be destroyed forever." This confession is repeated in verse 11, "My eyes have seen the defeat of my adversaries; my ears have heard the rout of my wicked foes."

How does your faith journey these days? Is it congested and lifeless? Let's follow the example of this Psalmist and declare words of praise and love, "O God, my God, I love you. I love you when I wake up and when I sleep. I love you in my celebrations and heartaches. I do not fear because you are with me always."

Sometimes, we approach our faith with too much knowledge, too much thinking, and too much pride. This kind of approach makes our faith journey stiff, mechanical, and lifeless. Let us renew our faith by declaring our love and gratitude for God. This might be the best way to breathe new life into our faith journey.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022 July

# 당신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What is the goal of your fai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101편은 사랑과 정의라는 신앙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결단의 시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 야 하는지, 시인은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 ♬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 묵상·**시편 101:1-8**

통독·시편 98-102편

- 1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 께 차양하리이다
- 2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 하리이다
- 3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 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 들지 아니하리이다
- 4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 5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 로다
- 6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 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 7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 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 8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끊어지리로다

Psalm 101 is a psalm of determination to live a life worthy of God's will with the faith goal of love and justice. What kind of leader should you be? The poet promises not to do what is wrong, but to do what is righteous.

#### √ Hymn342 Yield Not to Temptation

#### Meditation • Psalm 101:1-8

Reading Plan • Psalm 98–102

- <sup>1</sup> I will sing of steadfast love and justice; to you, O LORD, I will make music.
- <sup>2</sup> I will ponder the way that is blameless. Oh when will you come to me? I will walk with integrity of heart within my house:
- <sup>3</sup> I will not set before my eyes anything that is worthless. I hate the work of those who fall away; it shall not cling to me.
- <sup>4</sup> A perverse heart shall be far from me; I will know nothing of evil.
- <sup>5</sup> Whoever slanders his neighbor secretly I will destroy. Whoever has a haughty look and an arrogant heart I will not endure.
- 6 I will look with favor on the faithful in the land, that they may dwell with me; he who walks in the way that is blameless shall minister to me.
- <sup>7</sup> No one who practices deceit shall dwell in my house; no one who utters lies shall continue before my eyes.
- 8 Morning by morning I will destroy all the wicked in the land, cutting off all the evildoers from the city of the LORD.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나요? (2-8절)

What is the poet determined to do before God? (vv.2-8)

믿음의 올곧음을 위해 자신의 삶에서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If there is one thing you must hold onto in your life for the uprightness of your faith, what is it?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에임스사랑의교회, TBS(IA)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항백(I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신앙의 목표

#### A Burnt Offering Is a Sacrifice of the Whole Self

시인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는 것으로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1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나라를 바로다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흠이 없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2절). 여기에서 흠이 없는 삶이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에 일치된 삶을 일컫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인은 "불의한일을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3절).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불의한일을 저지르는 무고한 자들과 은밀히 중상모략하지 않고, 이웃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들을 증오하겠다고 단호히 결심합니다(5절).

그리고 시인은 믿음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자신을 수종들게 하는 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굴복하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끝끝내 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시인의 다짐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과 시인의 삶의 결단을통해 내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 신앙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The psalmist begins with a song of the Lord's love and justice, asking God for wisdom (v.1). Without the wisdom of God, the kingdom cannot be correctly governed. Above all, he resolves to live a life without blemish (v.2).

A life without blemish here is not a life that is morally clean, but a life that is consistent with God's justice. Specifically, the poet promises, "I will not let the unrighteous happen even before my eyes" (v.3). He is resolutely determined to hate the innocent, secret slanderers, and those who put their neighbors in trouble, forsake God's justice and do unrighteousness (v.5).

The poet pays attention to someone he can trust and says that he will make him his servant. In a world overflowing with injustice, the poet's promise to be with people who never give in or compromise and who ultimately pursue righteousness makes us reflect on our faith. Through today's words and the poet's life resolution, I ask myself what the goal of my own faith is. What kind of goal of faith do you have before God? What are you doing to achieve that goal? And with whom do you want to achieve that goal of faith? I cannot but pray before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499·Wed

2022 July

## 주님의 숨결로 짓는 신앙

Faith built with the breath of the lor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숨결로 지어진 것과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 ♬ 새79장(통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묵상**·시편 104:1-11**

통독·시편 103-104편

-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 2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 3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 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 4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 를 삼으시며
- 5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 이다
- 6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 7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렛소리로 말 미암아 빨리 가며
- 8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 9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 10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 11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Psalm 104 praises that all nature is created by the breath of God and praises God's power and majesty in creation.

√ Hymn79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Meditation • Psalm 104:1-11

Reading Plan • Psalm 103-104

- 1 Bless the LORD, O my soul! O LORD my God, you are very great! You are clothed with splendor and majesty,
- <sup>2</sup> covering yourself with light as with a garment, stretching out the heavens like a tent.
- <sup>3</sup> He lays the beams of his chambers on the waters; he makes the clouds his chariot; he rides on the wings of the wind;
- 4 he makes his messengers winds, his ministers a flaming fire.
- <sup>5</sup> He set the earth on its foundations, so that it should never be moved.
- 6 You covered it with the deep as with a garment; the waters stood above the mountains.
- <sup>7</sup> At your rebuke they fled; at the sound of your thunder they took to flight.
- 8 The mountains rose, the valleys sank down to the place that you appointed for them.
- <sup>9</sup> You set a boundary that they may not pass, so that they might not again cover the earth.
- 10 You make springs gush forth in the valleys; they flow between the hills;
- 11 they give drink to every beast of the field; the wild donkeys quench their thirs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물을 어떻게 다 스리고 있나요? (6-11절) How is God governing the water he created? (vv.6-11)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심과 손길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요?

Where in your life do you need God's presence and touch the most?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엄모성(IL)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기(I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지는 삶

A life filled with the breath of God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들짐승과 새들이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땅에는 들짐승들이 뜯는 풀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숨결이 가득함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물을 정해진 길로 흐르도록 경계를 정해 주셨다"(9절)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이 육지에 밀려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이를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이 다가옵니다(7-10절).

시인의 찬양은 흡사 마른 뼈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새로워지는 세상을 노래하는 에스겔의 환상을 보는 듯합니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강물 줄기가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며 다시 생명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듯합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상에서 낙담하며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숨결로 상처가 치유되고 막혔던 길들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게 합니다.

The poet is mesmerized by the beautiful world God created. God made fountains spring up in every valley so that wild animals and birds could drink water. He made grass that the wild animals graze on. You can feel the breath of God all over the earth. In particular, the words, "The Lord has set boundaries for the water to flow in a certain way" touches me the most (104:9). Our God rules the water that no one can control! God protects and takes care of the waters that come into the land so that they do not harm humans! The heart of the poet who praises the sovereignty and majesty of the great God touches my heart (vv.7–10).

The poet's praise reminds us of Ezekiel's vision of a new world where the wind of the Holy Spirit blows through the valley of dry bones. It seems to proclaim the greatness of God who makes the dead land come to life and brings all living things to life again by the stream of the river flowing from the threshold of the temple. This Word of God gives us peace of mind. We pray and bless that our lives, wrestling with discouragement in the world, will be healed of the wounds by God's breath and the blocked roads will be open wid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499·Thu **14**

##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

Life seeking and worshiping go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는 찬양시입니다.

#### ♬ 새383장(통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묵상·시편 105:1-10

통독·시편 105편

- 1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 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 을 말할지어다
- 3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 4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 할지어다
- 5-6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합지어다
- 7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 도다
- 8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 히 기억하셨으니
- 9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 이며
- 10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억약이라

#### Reading Insight

Psalm 105 is a song of praise that encourages us to worship God, who faithfully fulfills the covenant given to Abraham, to thank God for His wonderful providence, and to remember His grace.

√ Hymn383 To the Hills I Lift Mine Eyes

#### Meditation • Psalm 105:1-10

Reading Plan • Psalm 105

- <sup>1</sup> Oh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upon his name;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 <sup>2</sup> Sing to him, sing praises to him; tell of all his wondrous works!
- <sup>3</sup> Glory in 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the LORD rejoice!
- 4 Seek the LORD and his strength; seek his presence continually!
- 5 Remember the wondrous works that he has done, his miracles, and the judgments he uttered,
- 6 O offspring of Abraham, his servant, children of Jacob, his chosen ones!
- 7 He is the LORD our God; his judgments are in all the earth.
- 8 He remembers his covenant forever, the word that he commanded, for a thousand generations,
- 9 the covenant that he made with Abraham, his sworn promise to Isaac,
- 10 which he confirmed to Jacob as a statute, to Israel as an everlasting covenant,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1-5절에 나타난 명령형 동사는 무 엇인가요?

What are the imperative verbs in verses 1–5?

당신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 향력을 보이기를 원하시나요? How do you want to influence your children with your faith?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예배자로 사는 삶의 은혜

The Grace of Living as a Worshiper

1-5절에 명령형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것은 "감사하라. 불러라. 알려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전하여라. 기뻐하라. 찾아라. 사모하라. 예배하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같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것을 권면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결코 잠잠할 수 없다는 시인의 마음을 반영한 표현들입니다. 말이든 노래든 찬양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감사하라"입니다. 여기서 "감사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라"라고 권면합니다(4절).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5절).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깨닫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There are several imperative verbs in verses 1–5. They are: give thanks, call on my name, make me known, sing, praise, tell, rejoice, glory, seek, and remember. These words encourage each of us to actively express God's grace through our mouths. These are expressions reflecting a poet's heart that says a person who has received, and experienced God's overflowing love can never be silent. Whether in words, songs, or praise, if we remember what God has done, we have no choice but to worship God and proclaim His grace.

The first phrase that appears is "give thanks." The meaning of "give thanks" here is to worship God. The psalmist exhorts us to "seek God, and earnestly look to God for His strength" (v.4). And finally, the poet says "remember" (v.5). What does it mean to remember? To remember God who has been gracious is to realize God's goodness and power and to have the sincere faith to overcome problems. If that is so, what kind of grace and guidance of God do you remember?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 ♬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묵상·시편 106:7-12, 43-48 통독·시편 106편

- 7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 다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 8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 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 9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 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 10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 의 손에서 구워하셨고
- 11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매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였도다
- 12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 43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 44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 45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 하심을따라뜻을돌이키사
- 46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 47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워하사 여러 나라로 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 48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 Reading Insight of

Psalm 106 is a psalm of thanks and praise to God who loves the people of Israel endlessly, even though they sin, disobey, and worship idols.

♬ Hymn304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Meditation • Psalm 106:7-12, 43-48

Reading Plan · Psalm 106

- <sup>7</sup> Our fathers, when they were in Egypt, did not consider your wondrous works; they did not remember the abundance of your steadfast love, but rebelled by the sea, at the Red Sea.
- 8 Yet he saved them for his name's sake, that he might make known his mighty power.
- <sup>9</sup> He rebuked the Red Sea, and it became dry, and he led them through the deep as through a desert.
- 10 So he saved them from the hand of the foe and redeemed them from the power of the enemy.
- 11 And the waters covered their adversaries; not one of them was left.
- 12 Then they believed his words; they sang his praise.
- 43 Many times he delivered them, but they were rebellious in their purposes and were brought low through their iniquity.
- 44 Nevertheless, he looked upon their distress, when he heard their cry.
- 45 For their sake he remembered his covenant, and relented according to the abundance of his steadfast love.
- 46 He caused them to be pitied by all those who held them captive.
- 47 Save us, O LORD our God, and gather us from among the nations, that we may give thanks to your holy name and glory in your praise.
- 48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Israel,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And let all the people say, "Amen!" Praise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행하셨나요? (43-46절) What did God do when He heard the cry of His people? (vv.43-46)

하나님께 부르짖는 당신의 기도에 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What is contained in your prayer to God?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박관우(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신실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The Love of Faithful God

시인이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시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대적하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말합니다(7-10절). 둘째는 고난도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하나의 과정이고 결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43-44절). 하나님의 구원에는 알팍하거나 변덕스럽지 않고,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깊이 뿌리내린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인은 인자하신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1-2, 45-46절).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47절). 시인의 부르짖는 기도는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간구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구원하여 주신다. 주님은 크신 힘과 강한 팔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다"(느 1:9~10). 시인은 자격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흩어진 민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어야 할 믿음의 동역자는 누가있나요?

Why does the poet praise God even in the face of suffering? First, the psalmist says that we praise God for delivering us from the hand of our adversary even though we continue to rebel against God (vv.7–10). Second, it is because we believe that suffering is a process and result of God's faithful salvation (vv.43–44). In God's salvation there is a love that is not shallow or capricious and is immeasurably deep. That love is not a love that changes according to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but is a constant love deeply rooted in God's covenant. For this reason, the poet praises our merciful God (vv.1–2, 45–46).

At the end of the day, the poet prays, "Lord our God, save us. Gather us, who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nations" (v.47). "God delivers those who return to him even if his exiled people are at the farthest horizon, He will deliver His people with great strength and mighty arms" (Neh 1:9–10). The poet trusts in God who loves us to the end and prays for the restoration of the scattered nation. Who is a co-laborer of faith who needs our prayers in our church? Whom do we pray for so that their faith will be restored through God's love?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토요일·Sat

2022 July

##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God answers in our suffer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107편은 인생의 끝을 경험한 자들, 인생의 막장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곤핍함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 묵상·시편 107:4-14

통독·시편 107-108편

- 4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 5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 도다
- 6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 통에서 건지시고
- 7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 8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 암아 그를 찬송합지로다
- 9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 10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 에 매임은
- 11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 12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 13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워하시되
- 14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줄을 끊으셨도다

#### Reading Insight of

Psalm 107 is a poem by those who have experienced deliverance from desperate situations in life. They praise God's mercy who looked at their poverty and destituteness.

7 Hymn300 Just When I Am Disheartened

Meditation • Psalm 107:4-14

Reading Plan • Psalm 107–108

- 4 Some wandered in desert wastes, finding no way to a city to dwell in;
- <sup>5</sup> hungry and thirsty, their soul fainted within them.
- Then they cried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and he delivered them from their distress.
- 7 He led them by a straight way till they reached a city to dwell in.
- 8 Let them thank the LORD for his steadfast love, for his wondrous works to the children of man!
- **9** For he satisfies the longing soul, and the hungry soul he fills with good things.
- 10 Some sat in darkness and in the shadow of death, prisoners in affliction and in irons,
- 11 for they had rebelled against the words of God, and spurned the counsel of the Most High.
- 12 So he bowed their hearts down with hard labor; they fell down, with none to help.
- 13 Then they cried to the LORD in their trouble, and he delivered them from their distress.
- 14 He brought them out of darkness and the shadow of death, and burst their bonds apart.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백 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 나요? (12-14절)

How did God lead the people who cried out to the Lord in the midst of suffering? (vv.12–14)

인생의 끝자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게 하는 찬양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If there is a song that makes you feel the grace of God who saved you from desperate situations, what is it?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샘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형(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고난을 이기게 하는 부르짖음

A Cry to Overcome Suffering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순간들을 몇 번씩 경험했을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얼이 빠질 것 같은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아 고통 가운데 있었던 때(12절),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이 모두 쓸모없게 되어 넋을 잃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쓰라린 고난 속에서 눈물만 흘렸던 때(26-27절) 말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참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시인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드리는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는지 반복해서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 짖을 때, 그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6, 13, 19, 28절). 시인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베푸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1, 8, 15, 21, 31절). 신음 소리, 울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비통한 울음소리를, 강제 노역에 시달려 밤마다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끝을 경험하고 인생의 막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신앙의 삶을 원하실까요? 묵상해 봅니다.

There have been several times in my life when there were moments I had no control over. I am talking about a situation where your heart was broken, a time when no one paid any attention to you and you were in pain (v.12), all your experiences and knowledge became useless, you lost your mind and looked only at the sky, and you shed tears in bitter suffering (vv.26–27). What can we do in a dire situation filled with pain and despair that no one can stop?

The poet boldly confesses over and over again how God responded to his desperate prayers offered in a miserable reality. "When we cry out to the Lord in our troubles, He brings us out of our troubles" (vv.6, 13, 19, 28). Thank you (vv.1, 8, 15, 21, 31). He praises God who takes his groans and cries as his prayers. God heard Hagar and Ishmael's grievous weeping and the groans of Israel, who suffered from forced labor and groaned every night, accepted them as their prayers, and delivered them from suffering. Then, what does God expect from the people of faith who have experienced indescribable suffering and God's salvation in desperate situations of life? Also, what kind of life of faith does God want from you? Meditate on it.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17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 경 본 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쓰레기 더미에도 꿈이 있다

시편119:103-115

송상철목사(애틀랜타 새한교회)

케냐의 빈민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다. 나이로비 근교 쓰레기 마을에서 매일 쓰레기를 뒤지며 사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학교에 가거나 공부하는 꿈은 꿀 수도 없었다. 매일 쓰레기 더미 속에서 먹을 것과 고물을 줍던 아이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범죄 조직에 들어갔다.

마약 밀매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중독자가 되어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쓰레기통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을 보는 중에 꿈을 갖게 되었다.

소년은 청년이 되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영국은 빈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런데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6년 동안 소송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국 비자를 받아냈다. 그리고 맨체스터대에 들어가서 국제개발학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마쳤다. 결국, 자기의 꿈을 이룬 것이다.

이 청년에게 꿈을 심어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은 맨체스터대 입학 안내 책자였다. 쓰레기 더미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권의 책이 평생의 꿈이 되었고 어둡고 막막한 인생을 밝은 길로 이끌고 나간 힘이 된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어둡고 절망적이고 허무한 인생에 참 희망과 찬란한 빛을 던져줄 책은 성경이다. 나는 어쩌다 성경을 한 번 읽은 후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

리고 방황하던 내 인생에 희망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고통과 절망의 시절을 이겨내는 힘도 얻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허무한 인생이고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당할 인생인 것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영생 얻는 다는 진리도 깨달았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도 발견했다. 그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과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꿀보다 더 단 맛을 느끼고 힘이 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명철과 지혜가 생겨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 주님의 말씀은 발밑을 비춰 주는 등불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 망하지 않게 해준다. 성경 말씀은 먼 인생길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갖게 해준다.

또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이뤄지게 해준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복음이다.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발밑을 밝혀 형통케 해주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어 준다.

쓰레기 더미에도 꿈이 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내게 도 비슷한 스토리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내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성경 말씀을 읽으라. 거기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바란다. 당신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란다. 그러면 당신도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것이다.

<sup>ваед</sup>• Моп

2022 July

##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God-fearing life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111편은 감사예배 시로서 공식적인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이함께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려고 다짐하는 시입니다.

#### ♬ 새299장(통418장) 하나님 사랑은

#### 묵상•**시편 111:1**−10

통독·시편 109-112편

- 1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 2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 는 자들이 다기리는도다
- 3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 히서 있도다
- 4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 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 5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워히 기억하시리로다
- 6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 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 7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 8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 9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 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 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 Reading Insight

Psalm 111 is a prayer of thanksgiving, in which the people of Israel gather together during the official worship service to remember God's great work and to commit to live according to His will and Word.

√ Hymn299 O Love of God Most Full

Meditation • Psalm 111:1-10

Reading Plan • Psalm 109–112

- 1 Praise the LORD! I will give thanks to the LORD with my whole heart, in the company of the upright, in the congregation.
- **2** Great are the works of the LORD, studied by all who delight in them.
- <sup>3</sup> Full of splendor and majesty is his work, and his righteousness endures forever.
- <sup>4</sup> He has caused his wondrous works to be remembered; the LORD is gracious and merciful.
- <sup>5</sup> He provides food for those who fear him; he remembers his covenant forever.
- <sup>6</sup> He has shown his people the power of his works, in giving them the inheritance of the nations.
- <sup>7</sup> The works of his hands are faithful and just; all his precepts are trustworthy;
- 8 they are established forever and ever, to be performed with faithfulness and uprightness.
- 9 He sent redemption to his people; he has commanded his covenant forever. Holy and awesome is his name!
- 10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ll those who practice it have a good understanding. His praise endures forev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5–10)

How does God bless those who fear Him? (vv.5-10)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무엇입니까? If you could sum up the Word of God given to you today in one word, what would it be?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IL)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I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Extol the Lord with all my heart

주님께서 하신 일과 기적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엄하고 특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하심, 존귀하심, 의로우심, 정결하심, 온전하심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놀랍습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주님의 일과 기적에서 백성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자비로운 모습과 악인들과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공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기울여"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1~4절).

또한 시인은 인간이 바르고 선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의 기준인 말씀을 바로 행할 때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10절).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뒷받침될 때 악을 미워할수 있고(잠 8:13), 참 생명에 이르게 되고(잠 19:23), 신실한 삶을 가능하게 하며(렘 32:40), 이웃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확장된다고 가르칩니다(창 20:11, 느 5:9).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싶고, 무엇을 제거하고 싶나요?

The works and miracles of the Lord are majestic and special in themselves. It is even more amazing because it is filled with God's character: holiness, majesty, righteousness, purity, and perfection. Furthermore, in the work and miracles of the Lord, the poet discovers the mercy of God in protecting and caring for the people and the livingness and justice of God in bringing judgment on the wicked who commit iniquity. Therefore, it is said that all the people have no choice but to gather together and worship with all their hearts in thanksgiving (vv.1–4).

In addition, the poet confesses that human beings can attain enlightenment only when they practice the Word, the standard for life that God sets out, rather than when they live according to their own standards.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ll who follow his precepts have good understanding. To him belongs eternal praise" (v.10).

The Bible repeatedly says that when the fear of God is supported, we can hate evil (Prov 8:13), be led to true life (Prov 19:23), and can instill a faithful life (Jer 32:40). It also teaches that it is extended to a life of faith that loves our neighbors (Gen 20:11, Neh 5:9). Then, what does God want from you through a life that fears and worships Him? What do you want to keep and what do you want to get rid of?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ᅯᆌᄃᇎᇎ

첫 기도 First Prayer

묵상 Reading & QT

단숨기도 One Prayer

한 말씀 One Word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2022 July

## 반석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God's grace as the rock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116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생명을 위협받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으나 거기에서 벗어난 직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 ♬ 새309장(통409장) 목마른 내 영혼

#### 묵상·시편 116:1-14

통독·시편 113-118편

- 1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 2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 로다
- 3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 4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 5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 6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 7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 8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 9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 10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 도다
- 11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 도다
- 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 할까
- 13내가 구워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 14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께 갚으리로다

#### Reading Insight

Psalm 116 testifies of the salvation of God, which transfers the soul from death to life. The poet faces a life-threatening crisis, but soon after he escapes. he confesses God's faithful love.

√ Hymn309 My Soul Today Is Thirsting

#### Meditation • Psalm 116:1-14

Reading Plan • Psalm 113-118

- <sup>1</sup> I love the LORD, because he has heard my voice and my pleas for mercy.
- <sup>2</sup> Because he inclined his ear to me, therefore I will call on him as long as I live.
- <sup>3</sup> The snares of death encompassed me; the pangs of Sheol laid hold on me; I suffered distress and anguish.
- 4 Then I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O LORD, I pray, deliver my soul!"
- <sup>5</sup> Gracious is the LORD, and righteous; our God is merciful.
- 6 The LORD preserves the simple; when I was brought low, he saved me.
- **7** Return, O my soul, to your rest; for the LORD has dealt bountifully with you.
- 8 For you have delivered my soul from death, my eyes from tears, my feet from stumbling;
- <sup>9</sup> I will walk before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 10 I believed, even when I spoke, "I am greatly afflicted";
- 11 I said in my alarm, "All mankind are liars."
- 12 What shall I render to the LORD for all his benefits to me?
- 13 I will lift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 14 I will pay my vows to the LORD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시인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 하고 있나요? (5-8절) What personality does the poet confess that the Lord has? (vv.5-8)

당신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올가 미'가 나를 두른 것 같은 환난과 고 통을 겪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하 나님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하 게 해주셨나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experienced tribulation and suffering as if the "snare of death" was around you? How did God help you overcome it?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중앙연합감리교회, 홍진호(IL) 하이드팍한인교회, 이우민(IL) 목회자를 위한 기도

#### 든든한 믿음으로 이기는 삶

Living a Victorious Life with Steadfast Faith

시인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정과 간구를 들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 자리에 설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믿을 수 있는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소러운지! 세상은 왜 이렇게 두려운지!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처지와 삶을한탄하고 있을 때(7-11절) 주님께 기도했더니 마음이 밝아졌고, 비틀거리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8절).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은혜와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12절).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릴때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고후 4:8-9).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힘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통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14, 18절).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당신이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Why does the poet love and thank the Lord? He says the reason is because God has listened to his circumstances and requests. The poet says that he could not stand in his position without God's love. The poet is also saddened by his great ordeal, during which he confesses that he had no one to trust. Why is his own life so painful! Why is he so afraid of the world! But the poet says that while he was lamenting his plight and his life, he prayed to the Lord, his heart was lightened, and he did not stumble (vv.7–11). The reason, he confesses, is that he experienced God's irreparable grace and favor (v.12).

We can boldly confess that the Lord is our rock when our hearts are helplessly wavering (2 Cor 4:8–9). Not because the Lord takes away our suffering, but because He gives us the strength to overcome our suffering. Not only that, but because of that pain you experience God's deep love and grace more and more. So the poet finally declares that, "I will fulfill my vows to the Lord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v.14,18). So, who do you confess God is? How can you repay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022 July

## 복된 사람, 참된 행복

Blessed man, true happines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119편은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 찬양하는 시인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 ♬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묵상·시편 119:1-11, 45

통독•시편 119:1-56

- 1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 2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복이 있도다
- 3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 는도다
- 4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 5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 6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 리이다
- **7**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 8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 소서
- 9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 10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막게 하소서
- 11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 **45**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 이오며

#### Reading Insight

Psalm 119 contains the passion of a poet who praises how precious and necessary the Word is in our lives and how valuable it is.

♬ Hymn516 We've a Story to Tell the Nations

Meditation • Psalm 119:1-11, 45

Reading Plan • Psalm 119:1–56

- 1 Blessed are those whose way is blameless, who walk in the law of the LORD!
- <sup>2</sup> Blessed are those who keep his testimonies, who seek him with their whole heart,
- 3 who also do no wrong, but walk in his ways!
- 4 You have commanded your precepts to be kept diligently.
- 5 Oh that my ways may be steadfast in keeping your statutes!
- **6** Then I shall not be put to shame, having my eyes fixed on all your commandments.
- 7 I will praise you with an upright heart, when I learn your righteous rules.
- 8 I will keep your statutes; do not utterly forsake me!
- <sup>9</sup> How can a young man keep his way pure? By guarding it according to your word.
- **10** With my whole heart I seek you; let me not wander from your commandments!
- 11 I have stored up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 45 and I shall walk in a wide place, for I have sought your precept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 (1-3절) Who does the poet say is blessed? (vv.1-3)

우리의 인생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9-11) What can make our life graceful? (vv.9-11)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블루밍톤한인교회, 안성용(IN)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IN)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말씀이 자유케 하는 믿음

Faith that the Word Sets You Free

시인은 먼저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시인은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참된 축복의 삶이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1-3절).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합니다(6절).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한 삶은 안전하며, 평안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은 믿음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은 견고합니다. 또한 시인은 아삽이 고백한 것처럼(시 73편) 복되고 깨끗한 삶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9-11절).

마지막으로 시인은 믿음의 여정 끝에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45절).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인생의 푯대로 삼듯이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전하겠다고(눅 6:45) 다짐하는 듯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거침없이 온 세상을 향해 걷는 믿음의 길과 삶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길이 아닐까요?

The poet first says tha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are blessed.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Lord's law are those who seek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 and confess that a life of true blessing is possible when we live according to His Word (vv.1–3). So what does it mean to constantly seek God's will in my life? It is said that the poet takes the Word of the Lord into his heart (v.6).

To engrave in your heart is to listen to the Word. To listen to God's voice is to fulfill God's will in our lives in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Therefore, life based on the Word is safe and peaceful. A life based on the Word of the Lord can find the direction of faith, and the path of faith is solid. The psalmist also says that as Asaph confessed (Ps 73), a blessed and pure life is achieved when we seek God with our whole heart, meditate on the Lord's law, and live in the Word of truth (vv.9–11).

Finally, what is the poet dreaming of at the end of his journey of faith? "I will walk in freedom, for I have devoted myself to your commands" (v.45). Just as we make the way the Lord walked as the goal of our lives, the poet seems to be determined to proclaim and preach the gospel that sets us free to the world (Luke 6:45) by making the Word of the Lord the truth. Isn't the path of faith and life that holds onto the Word and walks toward the whole world without hesitation the path of a disciple fulfilling God's mission?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 주님을 위한 길

The way for the lor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편 119편은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지. 말 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시편 119:57-64 통독·시편 119:57-112

- 57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 58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게 은혜를 베푸소서
- 59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 길을돌이켰사오며
- 60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 였나이다
- 61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 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 62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 63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 는 자들의 친구라
- 64여호와여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 Reading Insight

Psalm 119 shows us how precious and necessary the Word of God is. It emphasizes how valuable the Word of God is and how important it is to live by the Word of God.

7 Hymn435 Thou, My Everlasting Portion

Meditation • Psalm 119:57-64

Reading Plan • Psalm 119:57-112

- 57 The LORD is my portion; I promise to keep your words.
- 58 I entreat your favor with all my heart; be gracious to me according to your promise.
- 59 When I think on my ways, I turn my feet to your testimonies;
- 60 I hasten and do not delay to keep your commandments.
- **61** Though the cords of the wicked ensnare me, I do not forget your law.
- 62 At midnight I rise to praise you, because of your righteous rules
- 63 I am a companion of all who fear you, of those who keep your precepts.
- 64 The earth, O LORD, is full of your steadfast love; teach me your statut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결 단 5가지는 무엇입니까? (57-62절)

What are the five resolutions the poet promises before God? (vv.57–62)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나요? When life is difficult and tough, which words give you the most comfort and strength?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퍼듀제자교회, 이종민(IN)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 임일호(K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주님은 나의 분깃

Faith that the Word sets you free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57절). 하나님은 내 삶의 터전이며 나의 전부이며 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자신이 가야 할 곳은 주님을 위한길입니다. 그분의 뜻을 수행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 계명을 지키겠다고" 합니다(60절).

시인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을지라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선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어디로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길로 인해 후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분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악인들이 나를 줄로 얽어매어도 주님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61절).

이같은 시인의 고백은 마치 다니엘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 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믿음 삶과 같습 니다.

We face crossroads and make choices in our life. However, the psalmist clarifies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his life by confessing that, "The Lord is my portion" (v.57). It says that God is the foundation of his life and of everything. The only way he should go is the Lord's way by doing the will of the Lord and following His will. So the psalmist says "I hasten and do not delay to keep Your commandments" (v.60).

The poet does not delay. Even at a crossroads, he does not hesitate. Because the choice is clear. He does not hesitate and is not conflicted because he knows exactly where to go and what to do. He will not regret the path not taken because the Lord is his portion. So the psalmist confesses that, "Though the cords of the wicked ensnare me, I do not forget your law" (v.61). Such a poet's confession is like a life of faith lived by Daniel who opened a window to Jerusalem and knelt to God, even though he knew that he would be thrown into the lion's den if he prayed to any god or man other than King Darius.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2**

2022 July

##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How wonderful the word of go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며, 말씀 위에 선 자는 어떤 불의에도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노래하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자리에게까지 나아가게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 ♬ 새285장(통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 묵상·시편 119:129-136

통독·시편 119:113-176

- 129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 130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 게 하나이다
- 131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 132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 133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 도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 **134**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 135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 136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 물같이 흐르나이다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is singing how wonderful the Word of God is. The Psalmist sings that the light of God's Word gives understanding to the simple and no sin will rule over him if he directs his footsteps according to God's Word. At the end, he confesses that God leads him to the place where he prays for those who despise the Word of God.

√ Hymn285 O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

Meditation • Psalm 119:129-136

Reading Plan · Psalm 119:113-176

- 129 Your testimonies are wonderful; therefore my soul keeps them.
- 130 The unfolding of your words gives light; it imparts understanding to the simple.
- 131 I open my mouth and pant, because I long for your commandments.
- 132 Turn to me and be gracious to me, as is your way with those who love your name.
- 133 Keep steady my steps according to your promise, and let no iniquity get dominion over me.
- 134 Redeem me from man's oppression, that I may keep your precepts.
- 135 Make your face shine upon your servant, and teach me your statutes.
- 136 My eyes shed streams of tears, because people do not keep your law.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살아있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었다 면 언제였나요? (129절)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that the Word of God was so wonderful and alive? (v.129)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136절) How do you feel when you discover people who do not obey God's law? (v.136)

####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문주현(KS)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김다위(K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은 절망의 한숨을 소망의 숨으로 채워주십니다

God Fills the Sigh of Despair with the Breath of Hope

신앙생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좇지 아니하면 은혜가 소멸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고 넓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지만 기도를 소홀히 하면 할수록 기도 줄은 더 짧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읽게 되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밝은 빛을 삶에 담아내게 되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가지고 있던 말씀마저 메말라가며 삶은 더욱 생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인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며(132절),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는 순간은 사람들에게서 심한 괴롭힘을 받아 불안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는 홀로 주저앉아 절망의 한숨을 내쉬며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절망의 한숨 또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소망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대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을 향한 눈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과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Even in our faith journey, we know the existence of the well-known principle, "the rich get richer and the poor get poorer." The more we long for the grace of God, the more God allows us to experience His grace. If we do not follow His grace, the grace escapes us. The harder and more often we pray, the deeper and wider the world of prayers we experience, and joy and thanksgiving rule over us. But if we neglect prayer, we experience that the power of our prayers become shorter and weaker.

It is the same with the Word of God. The nearer we are to the Word of God, the more we tend to read the Bible, and we discover more wonders and light of God contained in the Word in our life. But when we are far from the Word, even the Word kept in our hearts withers away and our life loses true meaning.

The Psalmist desired the grace of God more than anything else and pleaded with God to teach him the decrees of God (v.132). At the time the Psalmist pleaded with God, he was going through an uncomfortable and difficult life because he was being severely harassed by the people. He did not despair sighing the breath of desperation alone sitting down but he went to God who was the master of his life to sigh the breath of despair. To him, God breathed the breath of hope. God did not stop there. God restored him with His warm comfort and even allowed him tears and compassion toward those who defied the Word of God. This is indeed the power of the living Word of God. To enable the faithful to overcome the situation and to rise again as one called by God can only be done with the Word of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토요일·Sat

2022 July

# 위태로울 때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Not to fear even in danger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인은 위태롭고 절망적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사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노래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 ♬ 새543장(통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 묵상·시편 124:1-8

통독·시편 120-125편

- 1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 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 2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 3그 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며
- 4그 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 5그 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 로다
- 6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 와를 찬송할지로다
- 7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 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 8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 Reading Insight

As the Psalmist sings that God is on our side and saves us when we face dangerous and desperate situations, he confesses that is the source of peace and comfort for our souls.

☐ Hymn543 Simply Trusting Every Day

Meditation • Psalm 124:1-8

Reading Plan • Psalm 120–125

- <sup>1</sup> If it had not been the LORD who was on our side-- let Israel now say--
- <sup>2</sup> if it had not been the LORD who was on our side when people rose up against us,
- 3 then they would have swallowed us up alive, when their anger was kindled against us;
- 4 then the flood would have swept us away, the torrent would have gone over us;
- 5 then over us would have gone the raging waters.
- 6 Blessed be the LORD, who has not given us as prey to their teeth!
- 7 We have escaped like a bird from the snare of the fowlers; the snare is broken, and we have escaped!
- 8 Our help is in the name of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원수가 치러 올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3-5절)

If the LORD had not been on our side when men attacked us, what would happen to us if God did not help us? (vv.3-5)

절박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도 우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 이 있나요? (7절)

Have you overcome difficulty with the help of God when you were in a desperate situation? (v.7)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 정룡재(KS)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상순(K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만약에 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What If I Had not Met God...

인생에서 수시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본문에서는 생동 감 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산 채로 집어삼키 기도 하고, 홍수가 닥쳐 모든 것을 휩쓸어가기고 하며, 원수의 이빨에 찢기는 먹잇감 신세가 되기도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파멸의 골짜기에서 건져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멸망할 위기에서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이유만으로 원수 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은 일생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 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허덕이는 한 영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의 두려움 속에서도 쉼 없이 기도하고 정결한 예배를 늘 귀하게 세울 때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는 원수에게 쫓기는 영혼이 언제라도 찾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Today's scripture vividly describes several of life's hardships that we often face. Some examples include: we are sometimes swallowed alive by our enemy, we are engulfed by flood, and we become prey to men and are torn by their teeth. However, our LORD does not abandon His people but saves us from the valley of destruction. We are so weak that we cannot escape from the crisis of destruction by ourselves. But because God is on our side our enemies will be totally defeated, and we will be the protagonists of ample grace as blessed people of God. Therefore, the fact that I met God is the best blessing of my life. Even today, the mission called by God to our church and the saints is clear. We are to be used as a guiding instrument for those who are struggling and caught in the fowler's snare to meet almighty LORD our Creator. As we pray continually even in the midst of pandemic fear and endeavor to continue to maintain holy and precious worship service, goodness will prevail. The place to worship and the place to prav can be visited anytime to meet the living God and are the last refuge and the final fortress for the souls being chased by enemies.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4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주님을 찬양, 주님께 감사

주병열 목사(샬롯츠빌한인교회)

## ◢ 여전히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6 내가 예 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시펴 137:5-6).

시편 137편은 시편에서 가장 슬픈 시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로 잡혀가서 강가에서 수로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시간이 있을 때 수 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듣던 감독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부르 던 노래를 연주해 보라고 하곤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성전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 었던 그들은 고향을 생각하며 아픈 마음으로 찬양을 했었는데 이제 바벨론 감독자들을 위 해 찬양을 요구받는 아픈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 재주(수금을 연주하는 재주)를 차라리 잊어버리면 좋겠다고 말 합니다(5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찬양 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더 이상 차양도 말도 못 하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6절). 입은 있으나 그 입으 로 지배자들 앞에서 찬양으로 불러야 한다는 아픔과 입이 있어서 찬양하지 않는다면 입이 있어서 무엇을 하겠냐는 신앙적 딜레마를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예배할 수 있음이 얼 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유튜브만 틀어도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울려 퍼지는 찬 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제자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찬양을 불러야 하는 일

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만 먹으면 어떤 찬양, 예배도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 양하는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당 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를 만들어 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멘

# → 내 마음이 상할 때에도

"내 영이 내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시 142:3).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믿음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나에 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나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여 믿음 생활에 소홀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울왕에게 추격을 당할 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삼상 20:3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감정에 많이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을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말씀) 위에 올려놓아야 함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내 마음이 상할 때에도 나를 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약속)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감정도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일상에 쫓기지 않고,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합렐루야!

# 25

2022 July

# 주의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Until the tabernacle of god is prepare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며 법궤를 되찾아 모셔오기를 얼마나 갈망했고 주님이 머무실 장막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정성과 열심을 다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 ♬ 새249장(통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 묵상·시편 132:1-18

통독·시편 126-132편

- 1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모든 역경을 기억 하여 주십시오.
- 2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 3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 하며
- 4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 5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 6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 7"그분계신곳으로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 8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 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 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 9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 도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 10주님의 종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 11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네 뒤를 이을 것이다.
- 12만일 네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네 뒤를 이어서 네 보좌 에 앉을 것이다."
- 13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 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 기를 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 14 "이 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 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 15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 주고, 이 성읍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 16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 17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 18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 Reading Insight

This psalm is a song about how much King David longed for the temple for God, how much David wanted to restore and bring back the arc of Testimony, and how dedicated and passionate David was until the tabernacle was prepared for the LORD to dwell. He also sings about blessings bestowed to David and his descendants.

#### 3 Hymn249 Come, We That Love the Lord

Meditation • Psalm 132:1-18

Reading Plan • Psalm 126-132

- <sup>1</sup> Remember, O LORD, in David's favor, all the hardships he endured,
- 2 how he swore to the LORD and vowed to the Mighty One of Jacob,
- 3"I will not enter my house or get into my bed,
- <sup>4</sup>I will not give sleep to my eyes or slumber to my eyelids,
- 5 until I find a place for the LORD, a dwelling place for the Mighty One of Jacob."
- 6 Behold, we heard of it in Ephrathah; we found it in the fields of Jaar.
- 7 "Let us go to his dwelling place; let us worship at his footstool!"
- 8 Arise, O LORD, and go to your resting place, you and the ark of your might.
- 9 Let your priests be clothed with righteousness, and let your saints shout for joy.
- 10 For the sake of your servant David, do not turn away the face of your anointed one.
- 11 The LORD swore to David a sure oath from which he will not turn back: "One of the sons of your body I will set on your throne.
- 12 If your sons keep my covenant and my testimonies that I shall teach them, their sons also forever shall sit on your throne."
- 13 For the LORD has chosen Zion; he has desired it for his dwelling place:
- 14 "This is my resting place forever; here I will dwell, for I have desired it.
- 15 I will abundantly bless her provisions; I will satisfy her poor with bread.
- 16 Her priests I will clothe with salvation, and her saints will shout for joy.
- 17 There I will make a horn to sprout for David; I have prepared a lamp for my anointed.
- 18 His enemies I will clothe with shame, but on him his crown will shine."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하나님께 서약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3절)

What did David swear and vow to the Mighty One of Jacob? (v.3)

주님께서 영원한 거처로 시온을 택하시고 내려주신 축복은 무엇인가요? (15절)

What were the blessings of the LORD when Zion was chosen as His eternal place of dwelling? (v.15)

####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섭(LA) 리스빌연합감리교회, 조성우(L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The Passion of longing for the temple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상태입니까?(How is your soul?)"이 인사말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홀리클럽에서 모임을 시작하며 구성원 간에 늘 나누었던 인사말로 유명하며 후에 초기 감리교 속회에서 웨슬리의 전통을 따라 계속 이어져 온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여러 말로 하지 않고 단 한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입니다. 예배에 승리했다면 우리의 영혼은 보나 마나 은혜로 채워져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삶이 뒤따라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정말 '잘'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다 못해 차갑게 변해 버린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향한 열심히 있다면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고꾸라지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저급한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야 말로 순전한 열심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임재하시고 머무실 시온과 같은 예배를 찾고 계시며 빛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 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How is your soul? John Wesley, the founder of Methodism, first used this phrase to greet members when they began the Holy Club meeting. It became widely known and thereafter became a Wesleyan tradition and was used widely at class meetings of the early Methodist churches.

A simple way without using many words to confirm the condition of our souls is to ask, "Are you doing well with your worship service?" If we were victorious in worship service, our souls must have been filled with grace and overwhelmed with the Word, and our life filled with the resolve to be obedient to the Word of God is bound to follow. The problem is whether our worship was indeed "good". What if we had fallen into worldly mannerism? What if our mindset of worship service being important and precious had disappeared? More than anything, we need to check if our longing for the temple where our LORD dwells has become lukewarm or has become cold. If we have passion toward the worship service at the house of God, we cannot help but experience a worship service that is alive. We cannot help but experience our resolve to give our life to God's hands as we would prostrate in front of the grace of God poured onto us through the worship service.

In John 2, Jesus turned the table upside down in the temple that lost liveliness and had become a den for cheap merchants. The temple lost the spirit of worship service and became insensitive. Jesus again showed pure passion and longing for the temple. Even today, God is looking for worship services like Zion where God can dwell and look for worshipers on whom the resplendent crown of God can be place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sup>ক্</sup>ন্তথু•Tue

2022 July

#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Unity that pleases god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다윗이 형제간의 사랑과 연합을 보배로운 기름과 헤르몬의 이슬로 묘사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탄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 음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 ♬ 새220장(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 묵상·시편 133:1−3

통독·시편 133-137편

- 1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 다운고
- 2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 3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 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 Reading Insight

As David described the unity and love of brothers as precious oil and dew of Hermon, he exclaimed and sang of its beauty. This also foreshadowed the beautiful faith community that shares fellowship in faith and in the Holy Spirit.

7 Hymn220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Meditation • Psalm 133:1–3

Reading Plan • Psalm 133–137

- <sup>1</sup>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dwell in unity!
- <sup>2</sup> It is like the precious oil on the head, running down on the beard, on the beard of Aaron, running down on the collar of his robes!
- 3 It is like the dew of Hermon, which falls on the mountains of Zion! For there the LORD has commanded the blessing, life forevermor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2-3절) What is David's allegory of the harmony and unity of brothers? (vv.2-3)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What would be good examples of harmony and unity of brothers and sisters in the church?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보스톤연합감리교회, 안신형(MA)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MA) 목회자를 위한 기도

##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연합이 완성됩니다

When we look up to Jesus together, the unity is complete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이 말씀은 소극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습을 가장하고 그저 분쟁을 없이 하고 잡음을 제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맘이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매너 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연합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있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거하는 연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원(Circle)의 중심(Center)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원주(Circumference)를 이루는 모든 점인 성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여러 다른 모양일지라도 자유함 가운데 연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연합의 열쇠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앙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가 삼위일체 가운데 온전한 연합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는 화해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엡 2:14).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This expression does not mean passive unity but dynamic active unity. It is not a disguised peaceful gesture to avoid dispute and to eliminate noise. It is not just a blind effort to maintain good manners in order not to hurt anybody's feelings in the church. The unity that engenders brothers living together means truly becoming one. It means that the same mind and the same will are shared.

It is said in Ephesus 4:4,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Because each person is looking at Jesus in spirit, in faith, in word, and in prayer, the unity of living together is achieved. Jesus is at the center of the community circle and all the saints at the circumference are connected to Jesus at the center. Likewise, we will be united in any kind of crisis and it is possible for us to be united in the midst of diversity and freedom. This is the key to complete unity and the image of God within us that pleases God the most and is the shape of the faith community. God tells us the image of complete unity is the Trinity. Jesus made the two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Eph 2:14).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কএ • Wed

2022 July

# 나보다 나를 더 잘아시는 하나님

God knows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그리고 자기 존재의 시작조차 하나님께 있음을 놀라워 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 ♬ 새9장(통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묵상·시편 139:13-24

통독·시편 138-140편

- 13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 나이다
- 14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 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 15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 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 16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 17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 18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 19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 **20**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 21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 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 22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 23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 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 24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 Reading Insight

David confessed that he could not hide anything from God, nor could he avoid facing God. David was awed by the omnipotence and omnipresence of God and by the fact that the beginning of his own existence laid in God and praised the LORD.

☐ Hymn9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 Meditation • Psalm 139:13-24

Reading Plan · Psalm 138-140

- 13 For you formed my inward parts; you knitted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 14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my soul knows it very well.
- 15 My frame was not hidden from you, when I was being made in secret, intricately woven in the depths of the earth.
- 16 Your eyes saw my unformed substance; in your book were written, every one of them, the days that were formed for me, when as yet there was none of them.
- 17 How precious to me are your thoughts, O God! How vast is the sum of them!
- 18 If I would count them, they are more than the sand. I awake, and I am still with you.
- 19 Oh that you would slay the wicked, O God! O men of blood, depart from me!
- 20 They speak against you with malicious intent; your enemies take your name in vain!
- <sup>21</sup> Do I not hate those who hate you, O LORD? And do I not loathe those who rise up against you?
- 22 I hate them with complete hatred; I count them my enemies.
- 23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ry me and know my thoughts!
- 24 And see if there be any grievous way in me, and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 **Engaging with Words**

#### 말씀 속으로

다윗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으며 영혼이 스스로 깨닫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14절)

To whom was David grateful and what was understood by his soul? (v.14)

나의 생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 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6절) How would you answer the question of how and where did your life start? (v.16)

####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이충호(MA)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 조상연(M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크신 하나님 그러나 한없이 작으신 하나님 God Is Huge but God Is Tiny

"God is huge and at the same time, God is tiny." 이것은 어폐가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총만하실 정도로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티끌 같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동설은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고 갈릴레이가 주장했고 그 주장은 현재까지도 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아십니까? 그러나 과학의 발달에 따라 밝혀지고 있는 것은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일는지는 몰라도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2,000억~4,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2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광대한 우주에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믿음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이성과 초보적인 관찰을 뛰어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이 지구와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바로 우리를 위해 지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반드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시니라"(요 20:17). 맞습니다.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God is huge and, at the same time, God is tiny. This sounds paradoxical but is true. God is huge to fill the universe. But at the same time, God is unimaginably tiny. Although He i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t the same time, He is with me and in me and I am like tiny dirt. David met the omnipotent and omnipresent God and praised the LORD whom he experienced in his life

Galileo Galileo insisted the celestial theory was wrong and heliocentrism was right, and his claim has been accepted as truth until now. But did you know? With the advance of science, it's been revealed that the center of the solar system may be the sun but the center of the universe is earth.

In our galaxy, there are 2–4 billion stars. And in our universe, there are 2 billion galaxies. In the vast universe, God pays attention to those who live with faith looking up to Him. We must admit that the world of faith and the Bible that is the Word of God are the wisdom beyond our basic observation and understanding. The Bible already tells us that God created man and woman, and God created the world and entire universe for the peopl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Jesus always called God "father" and said, "my Father and your Father" (John 20:17). That is correct. Almighty God, omnipotent and omnipresent throughout the universe is my Father, who even today wants to have fellowship with us and wants to live in our spirit.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28**

2022 July

#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Set a guard over my mouth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다윗은 하나님께 오직 정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입술의 모든 말과 기도가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늘 자신을 살피고 근신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매까지 달게 받겠다는 다짐 을 하고 있습니다.

#### ♬ 새433장(통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 묵상·시편 141:1-10

통독·시편 141-143편

- 1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 2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 는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 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 4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 5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 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 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 6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므로 무리가들으리로다
- 7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 8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 두지 마옵소서
- 9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 10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 하게 하소서

#### Reading Insight

David prayed that God would lead him to a pure life and entreated God that all those words and prayers on his lips become holy offerings. David gave assurance that he would gladly receive the whip of love so that he could watch himself and behave well.

√ Hymn433 Nearer, Still Nearer

Meditation • Psalm 141:1-10

Reading Plan • Psalm 141–143

- <sup>1</sup> O LORD, I call upon you; hasten to me! Give ear to my voice when I call to you!
- <sup>2</sup> Let my prayer be counted as incense before you, and the lifting up of my hands as the evening sacrifice!
- <sup>3</sup> Set a guard, O LORD, over my mouth;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 <sup>4</sup> Do not let my heart incline to any evil, to busy myself with wicked deeds in company with men who work iniquity, and let me not eat of their delicacies!
- <sup>5</sup> Let a righteous man strike me--it is a kindness; let him rebuke me--it is oil for my head; let my head not refuse it. Yet my prayer is continually against their evil deeds.
- 6 When their judges are thrown over the cliff, then they shall hear my words, for they are pleasant.
- <sup>7</sup> As when one plows and breaks up the earth, so shall our bones be scattered at the mouth of Sheol.
- 8 But my eyes are toward you, O GOD, my Lord; in you I seek refuge; leave me not defenseless!
- 9 Keep me from the trap that they have laid for me and from the snares of evildoers!
- 10 Let the wicked fall into their own nets, while I pass by safel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한 적이 있나요?

Have you experienced how great the power of the spoken word is?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와 악한 일을 꾀하는 악인 들은 각각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10절)

What did the Bible say would happen to those who seek the LORD as refuge and those evildoers who try to devise evil things? (v.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 강명석(MA)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태(M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I Will Do as I Have Heard through My Ears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교육사업으로 자비량 선교를 하시는 D 선교사님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대일 양육을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 너무 귀해 함께 나눕니다. 선 교사님이 그날도 고난과 문제 앞에 어찌할 줄 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이 들려왔습니다. "이 어려움과 난관은 문제지란다. 그런데 나는 네가 어떤 답을 쓰는 지가 궁금할 뿐이란다. 난 네가 쓴 답안대로 일할 거야! 난 네 입 술이 고백한 대로 일 할거야!" 그 후로 선교사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의지적으로라도 선포한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문제지에 정 말 멋지게 답을 달거야!"라고요. 하나님은 막혀있는 상황을 아예 없이 하실 수도 있고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 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 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오 늘 당면한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짐을 느끼게 됩니 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푸념이나 신세타령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백과 선포로 나아가야 하겠구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 님의 문제지 위에 좋은 답안을 써 내려가야 하겠기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고 결단을 통 해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I remember the testimony of a missionary in the field of education who is actively engaged in one-on-one nurturing ministry in the Ukraine.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the confession he made to God because I think it was very precious. The missionary was praying that day without knowing what to do in face of hardship and problems, when he heard the voice of God. "This hardship and difficulty are like the questionnaire sheet. Then I am only curious about what kind of answers you will provide. I will work exactly as you answer! I will work exactly as your lips confess!" After that encounter, the missionary said that each time he faced hardship he would intentionally declare, "I will answer, as best as I could, to those questions from God!" God can eliminate obstacles that are blocking us or instantly resolve any difficulty.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Num 14:28).

We clearly know the direction of our prayers when facing our existential issues of today. Our prayers to God should not be either a complaint or hard luck story of ours, but rather they should be confessions and declarations pleasing to the will of God. As we must prepare good answers to God's questions today, we must discern the will of God through the Word of God, our prayers must be pleasing to God, and we must move forward with our servant's life with resolve, so help us God.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аву·Fri **29**

2022 July

# 외적의 손에서 건지소서

Rescue me from the hands of foreigners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찬송하는 백성과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외적의 손에서 늘 건져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늘 새노래로 찬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 새352장(통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 묵상·시편 144:1-15

통독·시편 144-146편

- 1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손을 가르 쳐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 2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 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 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 3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 4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 5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 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 6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 7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 8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 손이니이다
- 9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차양하리이다
- 10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 11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 12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잇돌들 과 같으며
- 13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 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 14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 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 15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 Reading Insight

The psalmist always wants to praise the LORD with new songs. God makes the people, who serve and praise God as their LORD, strong and always rescues them from the hands of foreigners and gives them victory.

☐ Hymn352 Stand Up, Stand Up for Jesus

Meditation • Psalm 144:1-15

Reading Plan • Psalm 144–146

- <sup>1</sup> Blessed be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 <sup>2</sup> he is my steadfast love and my fortress, my stronghold and my deliverer, my shield and he in whom I take refuge, who subdues peoples under me.
- <sup>3</sup> O LORD, what is man that you regard him, or the son of man that you think of him?
- <sup>4</sup>Man is like a breath; his days are like a passing shadow.
- <sup>5</sup> Bow your heavens, O LORD, and come down! Touch the mountains so that they smoke!
- 6 Flash forth the lightning and scatter them; send out your arrows and rout them!
- <sup>7</sup> Stretch out your hand from on high; rescue me and deliver me from the many waters, from the hand of foreigners,
- 8 whose mouths speak lies and whose right hand is a right hand of falsehood.
- <sup>9</sup> I will sing a new song to you, O God; upon a ten-stringed harp I will play to you,
- 10 who gives victory to kings, who rescues David his servant from the cruel sword.
- 11 Rescue me and deliver me from the hand of foreigners, whose mouths speak lies and whose right hand is a right hand of falsehood.
- 12 May our sons in their youth be like plants full grown, our daughters like corner pillars cut for the structure of a palace;
- 13 may our granaries be full, providing all kinds of produce; may our sheep bring forth thousands and ten thousands in our fields:
- 14 may our cattle be heavy with young, suffering no mishap or failure in bearing; may there be no cry of distress in our streets!
- 15 Blessed are the people to whom such blessings fall! Blessed are the people whose God is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윗은 사람의 실존을 어떻게 표현 하고 있나요? (4절)

How does David describe the existential issue of man? (v.4)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신다고 하나요? (12-14절) How does God bless and reward people who depend on God? (vv.12-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v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늘사랑연합감리교회, 박종희(MD) 베다니한인교회, 박대성(MD)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

God's Methods to Reward His People with Victory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어느 자리 어느 순간 에서라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시상식장에서 트로 피를 수상하는 순간, 가장 명예롭고 행복한 그 순간에 수상자가 "이 모 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멋있고 용기 있는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고백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 많은 스토리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는 또한 고백합니다. "전쟁에 익숙하도록 내 손을 훈련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투에 익숙 하도록 내 손가락을 단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역경 과 고된 훈련의 과정과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이 계 시기에 이 높은 곳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쉽게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현실 은 녹록치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도 새 힘 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더 단련되고 성숙하게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과 입술에 새노래를 채워주실 하나 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The best way a saint can please the LORD is to extol His name any place and any time. At ceremonies when recipients of an award confess, "Glory be to God" at their most honored and happy moment, it is without a doubt a moving and courageous scene. That confession may contain many hidden stories. In today's scripture, David confessed again as he praised the LORD for permitting victory of war. "It was God who trained my hands to get used to wars. It was God who trained my fingers to get used to battles." David was confessing that he was able to rise to the top because God was with him to overcome all hardships and difficult training. David did not say that the victory was ever easy. I pray and bless all those saints living in this world today who confess the same. Though the reality is not easy and hope can be difficult to find, God pours out new strength and new wisdom to us and makes us more disciplined and mature. I hope this will be your confession. I hope that we begin today with the expectation that God will fill our spirits and our lips with new songs.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a	
4	1	
V		,

	_	
4	2	
۷	_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ERGI·Sat

2022 July

#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하나님

God builds up jerusalem

#### 여는기도 Opening Prayer

##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 맥잡기 ∞

본 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 포로기 이후 회복기에 예루살렘에 재건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 ♬ 새210장(통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 묵상·시편 147:1-12

통독·시편 147-150편

- 1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 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 2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 3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 4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 시는도다
- 5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 궁하시도다
- 6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 드러뜨리시는도다
- 7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 양할지어다
- 8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 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 9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 10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 11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 12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 을 찬양할지어다

#### Reading Insight

This psalm describes the community of Israel as Jerusalem was rebuilt under Ezra and Nehemiah during the period of restoration after the time of exile slavery and praises the LORD who rules the whole universe and raises up the humble.

√ Hymn210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Meditation • Psalm 147:1-12

Reading Plan • Psalm 147–150

- <sup>1</sup> Praise the LORD! For it is good to sing praises to our God; for it is pleasant, and a song of praise is fitting.
- 2 The LORD builds up Jerusalem; he gathers the outcasts of Israel
- <sup>3</sup> He heals the brokenhearted and binds up their wounds.
- 4 He determines the number of the stars; he gives to all of them their names.
- <sup>5</sup> Great is our Lord, and abundant in power; his understanding is beyond measure.
- 6 The LORD lifts up the humble; he casts the wicked to the ground.
- 7 Sing to the LORD with thanksgiving; make melody to our God on the lyre!
- 8 He covers the heavens with clouds; he prepares rain for the earth; he makes grass grow on the hills.
- <sup>9</sup> He gives to the beasts their food, and to the young ravens that cry.
- 10 His delight is not in the strength of the horse, nor his pleasure in the legs of a man,
- 11 but the LORD takes pleasure in those who fear him, in those who hope in his steadfast love.
- 12 Praise the LORD, O Jerusalem! Praise your God, O Zi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2절) Why was the Psalmist praising the LORD? (v.2)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11절) Who did God say He liked? (v.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령의불꽃교회, 유재유(MD) 에덴연합감리교회, 신요섭(MD)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재건, 여전하신 하나님

God's Reconstruction, God Is Still the Same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은 훼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간 후 오랜 시간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마침내 때가 되어 귀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인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자기 땅을 회복하시고, 흩어진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은 여전히 일관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는 싸매주시는 분, 그리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주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폐허가 된 땅에서 새롭게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겪어온 자들을 치유해 주 셨고 이제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힘센 준마도 아니요, 힘센 다리를 가진 자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와 자유함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도라는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Israel was destroyed, the temple was decimated, and Israelites were taken as slaves and spent many years in exile. However, God remembered the covenant with His people, safeguarded and kept them, returned them to their homeland in due time, and restored Jerusalem. The Psalmist showed that God's mind and way were still consistent as He rebuilt and reassured Jerusalem. The LORD who ruled the universe with limitless capability restored His land and again gathered His scattered people. The poet is saying that God heals the brokenhearted and patches up their wounds, holds the humble with His hands, and is pleased with those who fear Him. This is the unchanging faithfulness of God as the devastated land was rebuilt. God healed those who endured unspeakable pains and promised them peace and prosperity in His bosom. What pleased God was not a strong horse or a man with strong legs but those who fear God and look up for the love of God. Therefore, the decrees and the laws are not God's rein to bind us but rather they are for us to live as people of God possessed with the faithful promise and love of God. Imagine the scene of people of Israel enjoying freedom and singing thanksgiving to God as they returned to Jerusalem from slavery and exile. I praise the LORD today who restored our identity as saints and is building our church filled with the Holy Spirit.

Journaling with Jesus

#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 31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

제 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 성 God's Voice	

#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적용 My Heart / Application	
	/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 권율목사(김해푸른숲교회)

칠 년 전쯤, 다른 목사님과 함께 초등학교 1, 4학년 암송을 심사하게 되었다. 1학년 암송 본문은 시편 42편 1-11절이고, 4학년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2절이었다. 필자도 성경 암송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이 이런 본문을 암송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1학년 심사를 하는 도중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 여자아이가 가냘픈 목소리로 시편 42편을 암송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특히 3절을 암송하면서 이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아이는 울음을 멈추지 못해 손으로 계속 눈물을 훔치며 암송을 겨우 이어 나갔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께 소망을 두라"(5절).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암송할 때, 필자의 눈에는 마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속에 투영된 것처럼 느껴졌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심히 갈급한데. 내 영혼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데.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그들에게 할말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이 내 앞을 가릴 뿐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몰아붙이는데,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종일토록 저는 눈물만 흘릴 뿐입

니다." 아이의 울음은 시편 42편 암송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이 아이는 왜 울었을까? 심사위원 앞에서 너무 긴장해서 울었을까? 아니면 본문의 내용이 자기 심령을 자극해서 울었을까?

어느 쪽인지 물어보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을 사랑하는 필자의 눈에는 적어도 후자처럼 비췄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한 구절을 통째로 빼먹고 암송하는 바 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었다. 멈추지 않는 눈물 때문에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 순간 필자가 심사위원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후회스러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눈물로 암송하는 아이를 한낱 점수로 평가한다는 자체가 나에게 가증 스럽게 느껴졌다. 약간 더듬거리거나 단어와 구절을 빼먹는 걸로 감점을 처리하는 것 이 과연 지혜로운 평가 방법인가? 그동안 아이들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거의 강박 수준으로 반복하며 암송했을 것인데 이것이 과연 성경암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릴 적부터 '말더듬이' 였던 필자는 암송대회에서 한 번도 입상해 본 적이 없다. (필자 같은 아이는 애초에 출전시키지도 않는다!) 하지만 목사가 된 지금까지 성경 암송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유익을 누리고 있다. 이 아이가 암송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오만가지 생각이 나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아이의 암송을 통해 하나님이 오히려 심사위원들의 영적 상태를 심사하시는 것 같았다. 아이의 입술과 눈물을 통해 던지는 거룩한 메시지에 도전받기보다 형식적인 평가 작업에 몰두하는 심사위원들의 영적 무지를 폭로하시려는 것 같았다.

그런 평가 기준 때문에 이 아이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지 못하는 나 자신이 싫기만 했다. 그러나 필자는 확신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날 이 아이의 시편 암송이 최고였다고.

요즘 사역 일정에 치여 성경을 대하는 필자의 태도를 점검하다가, 그날 기억이 새삼 떠올랐다. 예전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슨해진 건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최고 행복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필자의 책에 나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만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랑하는 그(녀)에게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 2022년 7월 기쁨의 언덕으로

# 소그룹 교재

####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십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 시편 76:1-12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신앙고백, 우리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시편 91:1-16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복된 믿음, 선교적 삶 | 시편 119:1-16, 43-45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동거하는 연합을 아시나요? | 시편 133편

●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내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붙들어주세요 | 시편 141편



#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새20장(통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새350장(통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새390장(통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 01 여는 질문

내가 들었던 칭찬의 말중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무엇이었나요?

#### 02 본문이해

히스기야 왕 때에 앗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미 유다의 다른 46개의 성읍이 함락되었으며, 앗수르 장수는 모욕적인 말로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선동했습니다. 나아가 앗수르의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왕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왕하19).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앗수르의 군대를 전멸하셨습니다. 앗수르 왕인 산헤립 역시 배반자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싸움 한 번 없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에 시편기자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1절)라고 노래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과 같이 앗수르에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국이 알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여전히 죄로 인해 실패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앗수르 군대를 이용하여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구원자 되심을 유다 백성에게 다시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밤 사이 앗수르의 군대가 진멸당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일을 5-6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찌라도, 큰 힘을 가진 자라 할찌라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구하심은 그가 예루살렘을 택하사 그의 처소를 시온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2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9절)이시며 "경외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7절). 하나님은 "고관들의 기를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12절)이십니다. 시편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11절)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본모든 이들의 마땅한응답입니다.

#### 03 말씀속으로

- 1. 시편기자가 하나님을 묘사한 표현들을 모두 찾아봅시다.
- 2. 구원을 얻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할 행위는 무엇입니까?(11절)

#### 04 삶속으로

- 1.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2.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믿는 자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05 암송구절 시편 76:1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 06 자녀와 나눔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 해보고, 왜 그 사람이 생각났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분은 누구인지 이야기해주세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본문 시편 91:1-16

# 신앙고백, 우리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249장(통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새565장(통300장) 예수께로 가면 새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01 여는 질문

어느 날, 딸이나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난 아빠가 좋아. 아빠, 나는 아빠가 있어서 넘 든든해!" "엄마, 엄마는 난 엄마가 넘 좋아. 엄마, 나는 엄마가 있어서 넘 든든해!" 이렇게 와서 말해주는 딸, 아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 생각나는 것을 말해봅니다.

#### 02 본문이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누군가가 설명해 주면 알게 될까요? 오늘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3절을 보면,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 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죽을 병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8절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손봐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해 보라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것 같은가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 03 말씀속으로

- 1. 이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2절)
- 2. 하나님은 이 고백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요? (14-16절)

#### 04 삼속으로

1.하나님이 왜 좋은 것 같은가요?

2.그렇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가요?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_\_\_\_\_ 분이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참 좋아요. 하나 님도 제가 좋으신가요?" 말해 봅니다.

#### 05 암송구절 시편 91:2

나는 여호와를 항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 06 자녀와 나눔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에겐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 복된 믿음, 선교적 삶



새285(통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새357(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니 새505(통268장) 온 세상 위하여

#### 01 여는 질문

지금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카드 한 장을 드린다면 그 카드로 무엇을 가장 하고 싶나요?

#### 02 본문이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시편 1편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비슷하게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흠 없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온전히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축복의 삶이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1-3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서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합니다(6절).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인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반한 삶은 안전하며 평안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은 믿음의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은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습니다 (4~8절).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인은 아삽이 고백한 것

처럼(시 73편) 복되고 깨끗한 삶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10절),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13, 15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9-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삶이 깨끗하게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믿음의 여정 끝에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45절).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인생의 푯대로 삼듯이 시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겠다고(눅 6:45) 다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침없이 온세상을 향해 걷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선교적 삶이 아닐까요?

#### 03 말씀속으로

- 1. 시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나요? (1-8절)
- 2.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9-16절)

#### 04 삶속으로

- 1.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원하고 계실까요?
- 2. 방학중에,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적 삶은 무엇이 있을까요?

#### 05 암송구절 시편 119:45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 06 자녀와 나눔

- 1. 하나님이주신말씀, 십계명은무엇인가요?
- 2. 십계명중에서자신에게 가장큰 영향을 주는 계명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나눠봅시다.



# 동거하는 연합을 아시나요?



새220장(통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새212장(통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01 여는 질문

가정에서 형제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12 본문이해

시편 133편은 다윗이 형제간의 사랑과 연합을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로 비유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탄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름과 이슬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자합니다. 기름은 고대 근동지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축복과 보호를 기원할 때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바르기도 했고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몸을 단장하고 존경의 표시로 몸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은 만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바로 기름과 이슬과 같이 귀하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이익을 쫓아 만들어진 여러 집단이 있지만 가정과 교회는 이익을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과 믿음을 좇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이 말씀은 소극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모습을 가장하고 그저 분쟁을 없이 하고 잡음을 제거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맘이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맹목적으로 매너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연합은 온전히 하나가 되어있는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몸이하나요 성령도 한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

고 있기 때문에 동거하는 연합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원(Circle)의 중심(Center)에 예수님이 서계시고 원주(Circumference)를 이루는 모든 점인 성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연합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여러다른 모양일지라도 자유함 가운데 연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연합의 열쇠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앙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가 삼위일체 가운데 온전한 연합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는 화해자가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엡2:14).

#### 03 말씀속으로

- 1.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모습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나요? (1절)
- 2.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2-3절)

#### 04 삶속으로

- 1. 사람이 모이는 어떤 사회일지라도 그 안에는 갈등 요소가 잠재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꿈꾸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즉 동거하는 연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2.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배경과 방식이 모두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인 신앙공동체가 진 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 05 암송구절 에베소서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 06 자녀와나눔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하는 즐거움이란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믿음의 소통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를 기도하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과 늘 친밀하고 함께 거니는 그런 사귐이 있기를 축복한다.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시편 141편

# 내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붙들어주세요



새433장(통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새283장(통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복음성가)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에 묵상이

#### 01 여는 질문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 입술과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한적이 있나요?

#### 02 본문이해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말과 관련된 속담이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입, 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다 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참여한 한글날 특집 "말의 힘"이라는 실험 다큐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두 병에 밥을 똑같이 담아놓고 한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스티커, 다른 한쪽에는 "짜증 나"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양쪽에 각각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4주 동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긍정의 말만들었던 병에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피고 구수한 누룩향이 난 반면, 부정의 말만들었던 병에는 말 그대로 까맣게 썩어버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 그 말에 창조의 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교육사역으로 자비량 선교를 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대일 양육을 활발하게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이 너무 귀해 함께 나눕니다. 선교사님이 그날도 고난과 문제 앞에 어찌할 줄 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어려움과 난관은 문제지란다. 그런데 나는 네가 어떤 답을 쓰는지가 궁금할 뿐이란다. 난 네가 쓴 답안대로 일할 거야! 난 네 입술이 고백한 대로 일할 거야!" 그 후로 선교사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의지적으로라도 선포한다고 합니다. "난 하나님이 내주신 이 문제지에 정말 멋지게 답을 달거야!"라

고요. 하나님은 막혀 있는 상황을 아예 없이 하실 수도 있고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오늘 당면한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푸념이나 신세타령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백과 선포로 나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문제지 위에 좋은 답안을 써 내려가야 하겠기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고 결단을 통해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 03 말씀속으로

- 1.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실제 내용은 무엇인 가요?(4절)
- 2.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와 악한 일을 꾀하는 악인들은 각각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10절)

#### 04 삶속으로

- 1.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2.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가치기준을 금하고 각자가 가지는 가치관과 수많은 기준 제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신앙이 때로는 터부시되기도 하는 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 용기 있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 05 암송구절 시편 141: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 06 자녀와나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 누구나 나도 모르게 무심코 내 뱉는 말들이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다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의지적으로라도 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한다.



### God Is the Only Savior



Begin, My Tongue, Some Heavenly Theme March We Onward He leadeth me: O blessed thought!

#### 01 Opening Discussion

What's the most pleasant compliment you've ever heard?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Assyria attacked Judah during the reign of King Hezekiah. Already 46 other towns in Judah had been captured, and the Assyrian generals have persuaded and incited the people of Judah with insulting words. And the king of Assyria even blasphemed God. Hezekiah opened a letter from the king who insulted God and prayed to God, "so now, O Lord our God, save us, please, from his hand, that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lone" (2 Kgs 19:19). God heard Hezekiah's prayer and sent an angel at night to annihilate the Assyrian army. Sennacherib, the king of Assyria, was also killed by the traitor's sword. Judah was saved by God's help without a single fight.

The psalmist sings, "In Judah God is known; his name is great in Israel" (v.1). As Hezekiah prayed, the nations came to know the God who had saved the people of Judah from Assyria. It was not that Judas was in trouble because they did not know God. Judas still failed because of their sin and repeated worshiping idols. God used the Assyrian army to reveal to the people of Judah that God is the only Savior. Knowing God is not everything. We must believe that only God is our Savior.

By night the Assyrian army was destroyed. In verses 5–6, the psalmist says, "The stouthearted were stripped of their spoils; they sank into sleep; all the men of war were unable to use their hands. At your rebuke, O God of Jacob, both rider and horse lay stunned." No matter how strong an army is, even a person with great strength

cannot oppose God. It is God who gives victory.

God saves Judah because "His abode has been established in Salem, his dwelling place in Zion (v.2). We must trust only the God who chose us and chose to save us. God is "the Savior of all the humble of the earth" (v.9) and "to be feared" (v.7). God "will cut off the spirit of the princes, (He) is to be feared by the kings of the earth" (v.12). Now the psalmist says to bring gifts to God (v.11). This is the proper response of all who have seen God's salvation and judgment.

#### 03 Into the Word

- 1. Let's find all the expressions that the psalmist uses to describe God.
- 2. What actions should those who have been saved do? (v.11)

#### 04 Into our life

- 1. When life is in crisis, who is the first person you turn to for help?
- 2. What can we do in the face of those who insult God or incite believers?

#### 05 Memory Verse Psalm 76:1

In Judah God is known; his name is great in Israel.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Ask 'when you're sick or tired, who comes to your mind first?' And continue to ask, 'why do you think of him/her?' If we sin or are tempted by sin, tell them who the first thing we should remember is.



## Let Us Confess the Apostles' Creed



Come, We That Love the Lord

If I come to Jesus

We will keep our faith

#### Opening Discussion

Imagine one day your children come up to you and say:

- "Dad, I like you."
- "Dad, I feel strong with you by my side!"
- "Mom, I love you so much."
- "Mom, I feel assured when you are around me!"

How do you feel? What more do you want to do for them?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How does God feel? Would we know if someone explained it to us? Psalm 91:3–16 tells us specifically how much God wants to give us. Verse 3 says, "Surely, the Lord will rescue you from the hunter's trap and deliver you from a mortal disease." If we are suffering from a deadly disease, it would be good if God healed us. Verse 8 also says he will protect us like this: "Only you will see with your own eyes, and you will see the wicked being punished." How great would it be if God properly punished those who ignore us and make us suffer?

#### 03 Into the Word

- 1. Who does the psalmist think is God? (v.2)
- 2. What is God's response to this confession? (vv.14-16)

#### 04 Into our life

- 1. Why do you love God?
- 2. How can you express your love for God?

#### 05 Memory Verse Psalm 91:2

"I will say to the Lord, "My refuge and my fortress, my God, in whom I trust."

####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Ask your children, "Who do you think God is?"



### Blessed Faith, Missionary Life



O happy day, that fixed my choice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 01 Opening Discussion

What would you do if you were given a credit card without any limits?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Who is the blessed one?

Psalm 1 says, "Blessed is he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the scornful, but whose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who meditates on his law day and night." Psalm 119 similarly says tha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law of the Lord are blessed. It is said that a blessed person is not one who is without blemish but rather is one who seeks the Lord with all his heart. The psalmist confesses that a life of true blessing is possible when we do not divide our heart between God and something else but live according to the path that the Lord has taught us (vv.1–3).

So, what does it mean to seek God's will in your life? It is said that it means to write the Word of the Lord upon one's heart (v.6). Writing his Word upon one's heart means to listen carefully and closely to his Word. Listening to God's voice means that we are to fulfill God's will in our lives through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him. Moreover, the poet confesses that he is not put to shame when he takes the words to heart. So a life based on the Word is safe and peaceful. A life based on the Word of the Lord can find the direction of faith, as the path of faith is firm and unwavering (vv.4–8).

How can we live a blessed and clean life? As Asaph confessed in Psalm 73, the psalmist here similarly confesses that a blessed and pure life comes when we seek

God with our whole heart (v.10), meditate on His law (vv.13, 15), and live in the Word of truth (vv.9–11). A life that does not lose sight of the Word of God is a life of purity because we can clean our dirty hearts with the Word of God.

Lastly, what is the poet dreaming of at the end of his journey of faith? "From now on, please allow me to walk freely in this wide world, since I am zealous in keeping Your precepts" (v.45). Just as we set the path that the Lord has walked as the goal of our lives, the poet takes the Word of the Lord as the truth and promises to preach the gospel to the whole world (Luke 6:45).

In the end, isn't a life of faith one that holds on to God's Word and walks toward the whole world without hesitation with a mission-led purpose?

#### 03 Into the Word

- 1 Who does the poet say are blessed? (vv.1-8)
- 2. How can we live a clean life? (vv.9-16)

#### 04 Into our life

- 1. What kind of faithful life does God want from you?
- 2. During vacation, what kind of missionary service can we experience with our children?

#### 05 Memory Verse Psalm 119:45

and I shall walk in a wide place, for I have sought your precepts.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 1. What is God's guidance found in the Ten Commandments?
- 2. Among the Ten Commandments, which commandment has the most influence on you? Let's share the reasons why.

# 4 Meck

# Do You Know That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O Master, Let Me Walk With Thee
Gathered here, within this place

#### Opening Discussion

What are some of the most beautiful images that we can find of siblings at home? Among the church members?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In Psalm 133, David compares brotherly love and unity to the precious oil and dew of Hermon. He admires how beautiful they both are. Let's take a brief look at the meanings of oil and dew in the Bible. Oil was used for various purposes in the ancient Near East. It was applied to people and animals to pray for blessings and protection. It was also used for healing purposes. It was even applied to the body as a sign of respect and adornment. Dew was believed to give life to all things.

God allows the church to exist in the midst of this world – and the fellowship and unity of the saints within his church are as precious as oil and dew. There are many groups in the world that are created for profit; however, families and churches do not seek profit and are created entirely according to the love and faith that God allows.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This verse does not mean a passive union, but a dynamic union. It does not imply a state of disquised peace and the mere absence of conflict and noise.

This is not to say that we blindly maintain manners in church so as not to offend each other. The unity that leads to the cohabitation of brothers means the state of being fully united. They have the same mind, the same will. Ephesians 4:4 says, "There is one body and one Spirit, just as you were called to one hope when you were called." In the Holy Spirit, in faith, in the Word and in prayer, the unity of cohabitation is

achieved because each one looks to Jesus. When each of the saints, who are the points that make up a circle, are all connected to Jesus, who is the center of that circle – we will be able to unite in any crisis and achieve unity in freedom regardless of any differences. This is the key to perfect unity as a community of faith – the image of God within us that he is most pleased with. The Bible tells us that the image of the perfect union is within the Trinity and that Jesus Christ is the reconciler who breaks down barriers (Eph 2:14).

#### 03 Into the Word

- 1. What does verse 1 say is the most beautiful and enjoyable appearance? (v.1)
- 2. How do you compare the way brothers and sisters get along together? (v.2-3)

#### 04 Into our life

- 1. In any society where people live together, it is natural for there to be potential elements of conflict. Nevertheless,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beautiful aspect of the union of living together which is what God desires?
- 2. How can a spiritual community of faith made up of people with different ideas, values, and backgrounds, and ways of life be truly united?

#### 05 Memory Verse Ephesians 2:14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us both one and has broken down in his flesh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 Of Sharing with your children

The greatest joy in the world is the joy of communication. But, dear son, dear daughter, I pray that you will find a friend with whom you can enjoy the communication of faith. Most of all, I pray for you to have a relationship where both of you are always close to God and walk with Him.

# 2 × × ×

# Please Hold onto the Confession of My Lips and Heart



Nearer, Still Nearer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May the words of my mouth

#### 01 Opening Discussion

When things go wrong, have you ever experienced how powerful it is when you honestly confess your faith in your heart?

#### **0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David pleads with God to set a watchman over his mouth and to guard the door of his lips.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proverbs related to what we say shows how important the mouth, tongue, and words are in our lives.

Some of you may have watched an experimental documentary called "The Power of Words," a special feature on Hangeul Day, in which announcers from a broadcasting station participated in a long time ago. They put the same amount of rice in two bottles, put a sticker saying "Thank you" on one bottle and "I'm annoyed" on the other, and said positive or negative words to each respective bottle for 4 weeks. What was the result? Bottles that only heard positive words had white, sweet mold and had a savory, yeast scent, while the bottles that only heard negative words literally rotted black. The Bible tells us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with His Word. Therefore, it is only natural that human beings, who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have the power of creation in their own words.

I remember the confession of a missionary, who is currently volunteering for an education ministry in Ukraine. The confession that he made to God while actively ministering in one-on-one discipleship is so precious that I would like to share it with our readers. When the missionary prayed that day, not knowing what to do in the face of hardship and setbacks, he heard the voice of God. God said, "Your difficulties are a problem, but

I'm just curious what kind of solution you will think of. I'll work on your solution! I will do whatever your lips confess!" After that, the missionary said whenever he faced difficult situations, he would declare: "I'm going to think of a really good solution to this God–given problem!" God is the one who can completely remove the obstacles and solve the problem all at once, but as he said, "So tell them, as surely as I live, declares the Lord,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 I heard you say" (Num 14:28). The direction of our prayers is clearly set when we face our problems daily. We have to believe that our prayers need to go beyond mere complaining or grumbling and go forward with confessions and proclamations that are in line with God's will. So I pray that you will discern God's will through the Bible, conform to God's heart through prayer, and move forward to a life of service through determination.

#### 03 Into the Word

- 1. What is the actual meaning of praying earnestly to avoid inclination toward evil in life? (v.4)
- 2. What will happen to those who take refuge in the Lord when they are in trouble and those who plot evil things? (v.10)

#### 04 Into our life

- 1. Words are important in our lives. On the other hand, no matter how hard we try, everyone says something they have regretted. As mature believers, what can we do?
- 2. In this age in which we live, absolute value standards are discouraged, and each person's values are mixed with numerous standards. What is the way to courageously proclaim the faith in this age of postmodernism, where the belief that has the Creator God as the master of history and life is sometimes taboo?

#### 05 Memory Verse Psalm 141:3

Set a guard, O Lord, over my mouth;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 **0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faced with difficult situations, there are words that everyone unknowingly spit out without realizing it. Dear son, dear daughter, I bless and pray that you will voluntarily make an affirmation that pleases God more than any other words.

#### MISSIONARY OF THE MONTH



Advance: # 3022581 Country: Liberia

Serving At: West Africa Initiative of Liberia

Home Country: Nigeria

### Maijamaa, Lily

Lily Maijama'a is a Global Mission Fellow with the United Methodist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engaged in a two-year term of service. He was commissioned on July 28, 2019.

The Global Mission Fellows program takes young adults ages 20-30 out of their home environments and places them in new contexts for mission experience and service. The program has a strong emphasis on faith and justice. Global Mission Fellows become active parts of their new local communities. They connect the church in mission across cultural and geographical boundaries. They grow in personal and social holiness and become strong young leaders working to build just communities in a peaceful world.

Lily is from Billiri, Gombe, Nigeria. His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s part of the Billiri Charge, Gombe District, Northern Nigeria Annual Conference. He holds a diploma certificate in graphic design and internet from the Millennium Computer Training Centre, a diploma in

computer studies from the Rhema Redemption Institute and a certificate in leadership development from the International Leadership Institute. He has worked for the youth and young adult ministry of the Northern Nigeria Conference and as a project coordinator.

As a young man, Lily did not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A friend guided him to know that in Christ alone, he would find eternal life. "I began to experience the joy of salvation that makes a man happy, even in the midst of atrocities," he said. "I continued to grow in discipleship. I discovered a concern in the body of Christ and around my communities. I sensed God calling me to do something. God began to place a demand for soul-winning in my heart and prompted me to tell others about the love of Christ and my new life experience. Soul-winning has been my ever-joyful experience since then. I am now working with the young people's ministry in the discipleship unit."





사귐의 기도 19

**김영봉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사귐의 기도의 6가지 열매 -'내적 안정감'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고

사귐의 기도가 우리를 내적 평강에 이르게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당연한 이치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이른다.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나누면, 우리 영혼은 비로소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든든함을 경험 한다.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하나님 을 '존재의 근거'라고 했다. 우리의 존재가 그근 거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든든한 안정감을 얻 는다.

기도자가 갖는 내적 안정감은 현실을 외면하 거나 도피함으로써 얻는 값싼 평안이 아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누리는 것이기에 값지다. 늘 그 안정감 속에 사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사 귐의 기도를 지속해 나가면 그 속에 거하는 기간 이 점점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떠한 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안정감 속 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7 절은 기도의 신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내적 평안은모든두려움을사라지게한다. 가장큰재 앙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열정을 다한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목숨 을 위협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택할 것이고, 살려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분 리되는 조건이라면 거부할 것이다. 이 믿음이 바울의 뜨거운 고백에 담겨 있다.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록 8:35-37)

어떻게 이러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는가? 그 찬가의 뿌리는 바울이 나눈 사귐의 기도였다.

그는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사귐은 내적 안정감을 형성해 주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바울은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는 혹독한 상황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갔다. '하나님 없는 행복' 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행'을 택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이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평화)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요 14:27)고 말씀하셨다. 세상은 거짓 평화를 선전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약속하신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얻는 평강은 또한 두려움을 없애 줌으로써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삼상 17장)는 이 진리를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 준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했다. 두려움은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을 마비시킨다. 두려운 마음을 품으면 이미 패배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두 가지 점에서 다른 병사들과 달랐다. 첫째,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 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삼상 17:45)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아무도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믿었다. 실상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지하신다고 믿으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언제나 진리 편에 서려는 진지한 삶을 살 때에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행 13:22) 생활을 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지하실 거라고 믿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도 그러했다.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 편에 서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이번엔 블레셋이 더 많은 악행을 범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다윗 편에 계시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렇다면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둘째, 다윗은 이 믿음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 그리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다. 두려움이 없어지자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던 골리앗의 약점이 보였다. 몸 전체를 갑옷과 투구로 가려 난공불락처럼 보였지만 이마가 열려 있었다. 그는 계산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결론짓고 골리앗 앞에 섰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냉철한 것이다. 믿음은 계산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냉철하게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직하게 걸어 나가는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해결 못할 문제란 없다. 항상 침착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불끈 달아올라춤을 추다가 금세 식어 버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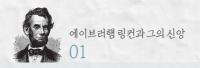


# 성경을 읽어주던 어머니와 어린 에이브

김명희 집사 \_ 와싱톤한인교회, VA

미국의 시인 칼 샌드버그(Carl Sandburg)는 자신이 쓴 링컨 전기에서 "The new husband put his bride on a horse and they rode away on the red clay road along the timber trails…. 새신랑은 신부를 말에 태우고 나무가 울창한 오솔길을 따라 붉은 흙을 밟으며 달려갔다…."라고 기록했다. 이것은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 링컨(Thomas Lincoln)과 어머니 낸시 행크스(Nancy Hanks)의 결혼 장면인데, 새신 랑이 신부를 말에 태우고 달리는 것은 로맨틱해 보이지만 "나무가 울창한 오솔 길"이나 "붉은 흙"이라는 이미지는 앞으로 이 신혼부부가 살아야 하는 세계, 나무를 자르고 붉은 땅을 개간하여 통나무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험난한 농부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1806년 결혼한 토마스와 낸시 링컨은 행복했다. 28세의 젊은 토마스는 목수였으며, 수목이 울창한 땅을 개간하고 통나무를 잘라 집을 세웠다. 그들은 Little Mount 침례교회에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정을 꾸렸다. 당시 마을이라고 해봐야 울창한 수목 속 여기저기 멀리 흩어진 단칸 통나무집이 몇 군데 세워진 정도였다. 링컨 부부가 결혼 한지 일 년, 1807년 낸시 링컨은 첫 딸 사라를 낳았다. 집안일을 하며 아기를 키우던 낸시는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과 대화하며 미래를 꿈꾸던 젊은 엄마였을 것이다. 그 시대에 여자로 드물게 글을 읽고 쓸수 있었던 낸시는 아이들에게 항상 성경을 읽어주는 어머니였고, 당시 그녀를 알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글 읽는 사람 a ready reader" 또는 "신앙인 believer"이라고 그녀를 칭찬했으며,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무엇인가 아는 것이 많았고, 먼 미래를 꿈꾸는 여인이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1809년 아버지 토마스 링컨과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 사이에서 마룻바닥도 없는 켄터키의 단칸방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 나무숲이 울창한 켄터키의 거친 바람 속에서 어머니 낸시는 긴 산고 끝에 에이브러햄 링컨을 낳았다. 해산을 도왔던 페기 월터스(Peggy Walters)는 "좀 어려웠던 해산이었어요. 산모는 밤새도록 애쓴 후 일요일 아침해가 돋을 무렵 아기를 출산했는데, 산모에게서 아기를 받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힌 다음, 아빠 톰이 들어왔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에살던 사촌 형, 아홉 살 데니스 행크스가 아기를 구경하러 왔다. 그가 "나도 아기를 안아볼까요?" 하자 엄마 낸시는 "데니스, 조심해라. 네가 아기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소년이란다" 하며 아기를 건네주었다. 데니스가 아기를 알고 껑충거리자 아기는 얼굴을 찡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겁이 난 데니스는 아기를 돌려주며 "별 볼 일 없는 아이네. 앞으로 뭐가 될라나?" 하며 나가버렸다.

링컨은 태고의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어머니 낸시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에이브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키우도록 마음을 먹었다. 1811년, 링컨의 식구들은 Knob Creek이라는 곳으로 이사했는데, 이곳은 좀 더 깊은 숲속의 산골짜기 마을로세살된 에이브에게 정말 좋은 놀이터였다. 울창한 나무들과 봄꽃이 만발하는 이곳은 밤이면 개구리가 울고 하늘의 별들이 내려와 물에 잠기는 시냇물이 흐르는 동네였다. 하지만 농장을 개척하는 것은 아주 고된 삶이었다. 동이 트면 일어나 일하고 어두워지면 집에 돌아와 벽난로를 피우는 삶, 그런 가정에서 에이브는 어린 시절부터집안일을 도왔는데, 그는 물을 길어 오고 벽난로의 재를 치우고, 심부름 일을 하면서자라났다.

에이브는 누나 사라와 학교에 다녔는데, 아무 때나 선생님이 시골 동네에 오게 되면 학교가 열리고, 그 선생님이 동네를 떠나면 학교 문이 닫히는 시절이었다. 다행히 어머니 낸시는 책 읽는 여인으로 아이들을 집에서 열심히 가르쳤다. 성경의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을 들려주던 어머니의 눈빛은 어린 에이브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이 숲속의 깊은 정적 속에서 에이브는 의젓한 나무처럼 자라났다. 어린 에이브는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빨리 배웠는데, 후일 링컨은 "언제나 또 어디서나 틈만 있으

면 글씨를 써 보았더니 글씨를 잘 쓰게 되었다"라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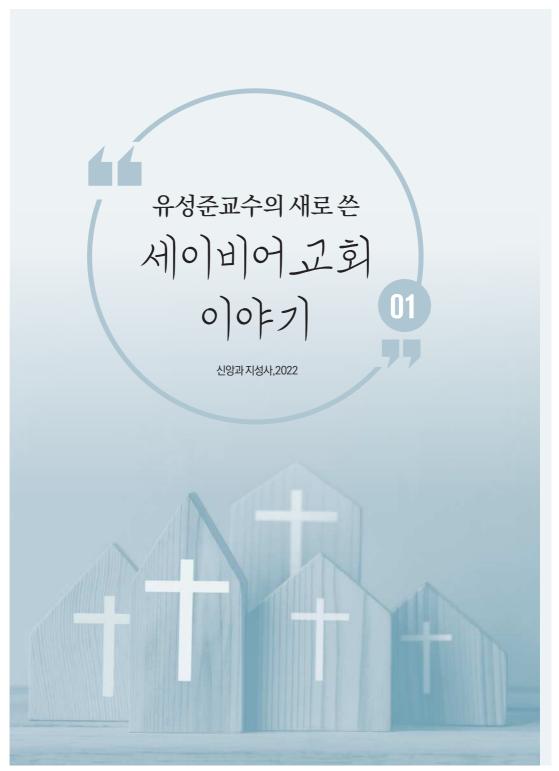
에이브러햄 링컨은 1816년 아버지와 함께 켄터키를 떠나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 오하이오 강을 건너 인디애나에 도착했다. 그는 "끝없이 펼쳐지는 수목이 울창한 평 야에서 처음 보는 새들과 짐승들을 만났으며 오하이오 강은 바다처럼 넓고 커 보였 다"라고 기록했다. 이제 여덟 살 된 에이브는 아버지를 도와 도끼를 들고 숲을 헤치고 들어가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나는 당시 아직 어린 나이였으나 나이에 비해 큰 편 이어서 도끼자루가 손에 쥐어진 이후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라고 링컨은 회상했다.

그렇게 행복했던 숲속의 집에 불행이 찾아왔다. 1818년 가을 우유병이라는 이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이 집의 가축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하더니 어머니 낸시도 전염병에 걸려 쓰러졌다. 한번 걸리면 살아날 도리가 없는 무서운 전염병에 걸린 그녀는 결국 10살에이브와 12살사라를 남기고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개척자의 부인으로 가족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끊임없이 일하며 아이들에게 신비한 성경이야기를 늘 들려주던 낸시 행크스 링컨, 그녀는 돌사과꽃이 흰 눈처럼 피어오르는 이 세상에 사내아이를 하나 남기고 떠났다.

유난히 민감했던 소년 에이브의 슬픔은 아마 이때 시작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이브러햄아, 나는 멀리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않을 것이다.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사라 누나와 아버지를 잘보살필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데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 주기를 바란다"이 어머니의 유언을 링컨은 영원히 가슴에 새겼다. 어머니가 남기고 가 성경책과 함께…..

#### 편집자주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의 신앙》 연재를 시작하는 김명희 집사는 시인이며, 번역문학가로,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조지워싱톤대학에서 심리학과 창작을 공부했다. 그녀는 국무성에서 통역관으로 오랜 기간 일하며 시인으로 등단하였고, 영시를 한글로, 한어시를 영어로 다수 번역했으며, 이상(李箱)의 오감도(烏瞰圖)를 영어로 번역, 출간했다. 역사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링컨의 전기를 읽고 매료되어 워싱톤 중앙일보에 〈링컨 스토리〉를 연재했다가 후에 〈에이브러햄 링컨〉 (도서출판선)을 출판했다.



# ■ 전환의 시대, 왜 세이비어교회인가?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위기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전부터 예고된 위기였다. 근본적인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의 교회됨의 위기'이다. 한국교회는 예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관[Kingdom Value]보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시대 한국교회가 참된 교회[Authentic Church]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서가 조명하는 바른 방향을 회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성찰하기보다는 개교회 중심의 성장에만 집중하면서 그 부작용과 한계가 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교회 갱신 운동은 종교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고 본질을 추구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룬 큰 흐름은 교회 성장운동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교회 성장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과제요, 평가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외적 성장에 비례하여 교회와 교인의 내적 변화와 성숙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과 변화에 따른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의 위기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기독교데이터연구소 2020년 8월 13~21일)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 종교 별 신뢰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63%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라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34.8%였으며 '더 좋아졌다'는 1.9%에 불과했고 특히 개신교에 대해 '더 나빠졌다'는 응답의 대다수가 19~29세(72.6%)의 젊은 세대와 학생 (72.6%)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불교와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각각 86.8%, 83.0%로 이전과 별 차이가 없었다. 개신교 신뢰도 회복에 대하여 응답자의 60.6%는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49.6%는 '사회적 약자 구제 및 봉사'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인 공동 체 운영에서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수평적인 서번트목회의 활성화로 교회 본질을 회 복하고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과 선한 영향력의 회복을 통전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나는 1981년부터 23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과 목회을 마치고 2004년 한국으로 돌 아왔을 때 미국에서 경험한 21세기 가장 혁신적인 교회 모델 중 하나인 세이비어교 회(The Church of the Savior)를 한국교회에 미래목회의 대안 모델로 소개하고 적 용하고자 하였다. 한국에 돌아와 새로운 환경과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며 살펴 본 한국 개신교회는 심각한 위기와 도전 속에 있었다. 한국교회의 외적 위기는 인구 절벽,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청년실업, 교회의 신뢰도 추락, 안티 기독교 세력의 확 산, 소득 3만 불시대의 도래 등 여러 문제가 산재했다. 내적 위기는 기복 신앙, 이원론 적 신앙생활, 교인 관리만을 위한 프로그램들,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했고, 무엇보다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가 심각하였다.

# 2 세이비어교회이해하기

#### 세이비어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947년 고든 코스비(Gordon Cosby) 목사에 의해 설립된 세이비어교회는 철저 한 입교 과정과 고도의 지속적인 훈련과정을 통해 150여 명 정도의 교인으로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급진적인 제자 공동체로 잘 알려져 있다. 교회 개척부터 수많 은 사람들이 세이비어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특별한 공동체를 방문했다. 그 들의 첫째 질무은 "세이비어교회는 어디에 있는가?"였는데 대답이 쉽지 않다. 왜냐 하면 세이비어교회는 지교회 형태의 각자 독립된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9개의 신앙 공동체와 50여 개의 지역사회 사역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이 들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성이다.

세이비어교회는 1947년 고든 코스비 목사와 그의 아내 메리의 목회로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고든 코스비목사가 101공수부대 군목으로 복무할 때, 그는 새롭고 혁신적인 교회에 대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다. 코스비 목사는 처절한 전쟁과 전투에 참여하며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까지도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군목의 역할이 영혼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보다는 사역의 양적 성장에 대한 보고에만 귀착되어 있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실을 보며, 신약성서가 계시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초대교회적인 새로운 양상의 목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든은 그때 경험을 이렇게 고백한다.

"지금부터 나는 진실된 목회를 할 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일생 동안 교인이 한사람, 다섯 사람, 또는 열사람이라도 그들과 함께 진실된 목회를 할 것이다. 기독교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 한사람이라도 그의 생애에 새로움과 다름을 생성시켜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전역 후 그 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역사를 꿈꾸기 시작하였다."

교회 개척 후 첫 모임에 고든 코스비 목사의 비전에 동의하는 7명이 참석하였고, 1950년에는 19명의 교우들이 워싱턴 D. C.(2025 Massachusetts Ave.)에 교회 건물을 구입하여 입당하였다. 2008년 고든 코스비 목사가 은퇴할 때까지 이 본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1960년대 셀마, 알라바마의 행진으로 흑인 민권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때 토기장이집 카페는 워싱턴 D. C.의 빈민가인 아담스 몰간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세이비어교회는 피폐한 도시빈민들의 상황을 보며, 강력한 소명을 가지게 되었고, 빈민지역

을 위한 사역들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 소명에 대한 응답으로 아담스 몰간 지 역에서 시작하였다.

1976년 핵심 교인이 120여 명이 되었을 때 세이비어교회는 의도적으로 6개(지금 은 10개)의 소명과 리더십 소그룹인 미션 그룹(Mission Group)을 가진 독립적인 신 앙공동체[Faith Community]로 분립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각 공동체는 2-3명의 특별한 사역에 소명 받은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사회 사역들을 아담스 몰간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역들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지금까지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이비어교회는 지난 75년의 역사 속 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4가지의 핵심적인 사역의 철학을 가 지고 있다.

첫째는. 소명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무언가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 공동체는 그부르심을 발견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

둘째는, 은사이다. 모든 사람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질 수 없다.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은사를 발견케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은사는 설교, 행정, 환대, 상담, 유머까지 모든 은사는 환영받고 선용되어야 한다.

셋째는,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이다. 세이비어교회는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에 헌신하여 개인으로써 그리고 부름받은 공동체로써 존재하고 유지된다. 매일 성경공부, 명상과 기도는 내적인 여정에 필수적이다. 영적인 보고들, 소그룹 모임 참 여, 소그룹 미션 그룹(Mission Group)을 통해 함께 사역하는 것들이 영적 체계화에 필수적이다.

넷째는, 공동체이다. 각 예배공동체는 각자의 방법대로 찬양. 말씀과 성찬을 통해 각자의 내적인 여정과 외적인 여정에 참여하며 함께 축하한다. 구성원들은 공동체적 으로 동등하게 신앙의 여정에 헌신하며, 서로 책임적인 존재가 되도록 격려한다. 사 역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기쁨이 함께한다.

세이비어교회의 이론적인 기초를 놓은 엘리자베스 오코너는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녀는 1963년 "헌신에로의 부름"(Call to Commitment)라는 책에서 많은 목회자 들이 가지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소개한다. 이 책을 통해 그녀는 하나님께 헌신하 고 교회를 갱신하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오늘날에도 많은 통찰력을 주고 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존속시킬 수 없는 목회에 몸을 담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다. 현존하는 목회의 구조는 너무 교단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도 알 수 없다. 목회에 대한 혐오와 사랑이 교차적으로 마음을 차지한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보화처럼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조직과 구조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부여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목회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갈등을 느끼게 한다."

그녀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과도 무관치 않음을 자각하게 하며, 지난 75년의 세이비어교회의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비어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비어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쉽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욥기의 새로운 이해

정창호 장로(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지난 12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기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지난 6월,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본문은 욥기 말씀이 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 세상이 전례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절박감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마음가짐으로 욥기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나의 고난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욥기에 대한 나의 이해는 고난과 인내, 그리고 회복 및 축복에 대한 교 훈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로운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지만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였다는 것과 그의 세 친구의 조롱과 비난 가운 데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의롭게 살려 했던 욥의 신앙을 저의 본으로 여기곤 하였

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는가라는 생각이들 때마다, 욥과 같이 이러한 고난을 인내하므로 잘 이겨내면 더 나은 갑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겠지라는 기대 가운데 묵묵히 견뎌보려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소그룹 모임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인내하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해야한다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적어도 지난 6월의 욥기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욥기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전제하였습니다.

첫째, 성경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둘째는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

로마서 3:10-12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였습니다. 그런데 욥기 1:1에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라는 말씀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 1:8, 2:3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There is none like him on earth)."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욥을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욥의 의로움을 '세상에'라고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욥만큼 의로운 자가 이 땅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결코 의인일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게 되면, 욥기 42:5,6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 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욥은 그의 잘못을 비로소 알았

습니다. 귀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지만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며 바벨탑처럼 쌓여가는 자신의 의를 지키려는 삶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크심과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이것을 죄로 단정하고 있으며, 욥은 이를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들 -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대신해서 빠짐없이 번제를 드림(1:5),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김(23:12), 이웃에게 베푸는 일(24장), 지나친 금욕(31:1,2)과 구제,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는 일(27:4,5,6).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자신의 의가 정금같이 빛나지기를 바라는(23:10) 기대(소망, 믿음). 이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욥의 열심과 기대를 마땅히 회개해야할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지나온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 오랫동안 욥기 31장까지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욥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멘토처럼 되었으며 그러한 욥을 본 받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32장 이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 이 욥기 31장까지에 머무르게 한 것 같습니다.

세 친구와의 변론이 끝난 후, 엘리후(32:2; 34:5,6,7)는 "나는 충분히 의로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러한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라고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흙에서부터 왔으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할수 없음인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 하는 모든 행실과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려 하셨습니다(33:17). 모든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대속물과 중보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33:24, 26)가 있어야 하며,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열심이나행위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속물에 의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엘리후의 변론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자신 의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욥'을 거듭 책망(40:8)하셨습니다.

결국 욥기 42:6에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 다"라고 욥은 말하였습니다. 한동안 욥은 무엇을 회개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 다.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은 회개해야 할 것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이러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의에 집착하고 자신의 의를 바라보며 스스로가 의를 세우려 했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며, 그 자체가 얼마나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려하고,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거두어들이고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티끌과 재가운데서, 즉 스스로를 흙과 같이, 티끌과 재와같이 여기면서 회개하나이다(곧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구나하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주체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욥기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한 후 다시 읽고 묵상하였을 때, 욥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욥을 사랑하셔서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없이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성경 가운데 빛나는 신약이었으며,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욥기를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생각에서 지난 6월, 욥기를 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지만, 욥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으며, 고난을 잘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심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 자신은 고난을 당하게되면 그 고난에 지불한 대가를 나의 의로 여기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나를 율법 아래 매이게 하였고 그

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고난을 통해 성취될 그 무엇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 혜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나의 신앙의 자세도 어쩌다가 생겨난 바이러스에 대해 내가잘 대처하고 이겨나가야겠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기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 갈수록 '나의 의를 세우려는 인본주의 신앙'으로 변질되려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아가며 그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함을 욥기의 묵상을 통해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 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 한 권에 \$3.5

#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 10 🗆 \$ 20 🗆 \$ 30 🗆 \$ 50 🗆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 66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99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남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고은영, 520-760-9749)

####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u>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u>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온타리오 감리교회(전재홍, 909-986-6641)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월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서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승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한인교회(조영진,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이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울랜드딱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송명철,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 Kentucky(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텐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 (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 Missouri(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운진, 702-434-9915)

####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고레이스붿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청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남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 New York(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 Oregon(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홍정균,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 Rhode Island(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 South Carolina(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면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면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면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 Texas(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범경원) 러백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새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월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전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 •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성톤사검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상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상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 • Washington(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 Washington D.C(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 Wisconsin(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황선중,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정희권,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 GAUM(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 Russia(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 성경진도표

2022/01			2022/02			2022/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창세기	1	01	창세기	27	01	출애굽기	1-2
02		주일	02		28	02	Ash Wed.	3
03		2	03		29	03		4
04		3	04		30	04		5
05		4	05		31	05		6
06		5	06		주일	06		주일
07		6	07		32	07		7-8
08		7	08		33	08		9-10
09		주일	09		34	09		11-12
10		8	10		35	10		13
11		9	11		36	11		14
12		10	12		37	12		15
13		11	13		주일	13		주일
14		12	14		38	14		16
15		13	15		39	15		17-18
16		주일	16		40	16		19-20
17		14	17		41	17		21-22
18		15	18		42	18		23-24
19		16	19		43	19		25
20		17	20		주일	20		주일
21		18	21		44	21		26
22		19	22		45	22		27
23		주일	23		46	23		28
24		20	24		47	24		29
25		21	25		48	25		30-31
26		22	26		49	26		32
27		23	27		주일	27		주일
28		24	28		50	28		33-34
29		25				29		35-36
30		주일				30		37-38
31		26				31		39-40

2022/04			2022/05			2022/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마가복음	1	01	시편[-]]	주일	01	레위기	1
02		2-3	02		1-2	02		2
03		주일	03		3-5	03		3
04		4-5	04		6-7	04		4
05		6	05		8-9	05		주일
06		7	06		10-12	06		5
07		8	07		13-16	07		6
08		9	08		주일	08		7
09		10	09		17-18	09		8
10	고난주일	주일	10		19-21	10		9
11		11	11		22-24	11		10
12		12	12		25-27	12		주일
13		13	13		28-30	13		11
14		14	14		31-33	14		12-13
15		15:1-41	15		주일	15		14
16		15:42-27	16		34-35	16		15
17	부활주일	주일	17		36-37	17		16-17
18		16	18		38-39	18		18
19	고린도전서	1	19		40-41	19		주일
20		2-3	20		42-44	20		19
21		4	21		45-48	21		20
22		5-6	22		주일	22		21
23		7	23		49-50	23		22
24		주일	24		51-53	24		23
25		8-9	25		54-56	25		24
26		10-11	26		57-60	26		주일
27		12	27		61-64	27		25
28		13-14	28		65-67	28		26
29		15	29		주일	29		27
30		16	30		68-69	30		4
			31		70-72			

2022/07			2022/08			2022/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시편III-V	73-75	01	민수기	1-2	01	로마서	1
02		76-77	02		3-4	02		2
03		주일	03		5-6	03		3
04		78	04		7	04		주일
05		79-81	05		8-9	05		4
06		82-83	06		10	06		5
07		84-87	07		주일	07		6
08		88-89	08		11-12	08		7
09		90-91	09		13-14	09		8
10		주일	10		15	10		9
11		92-97	11		16	11		주일
12		98-102	12		17-18	12		10
13		103-104	13		19	13		11
14		105	14		주일	14		12
15		106	15		20	15		13
16		107-108	16		21	16		14
17		주일	17		22	17		15
18		109-112	18		23-24	18		주일
19		113-118	19		25	19		16
20		119:1-56	20		26	20	고린도후서	1-2
21		119:57-112	21		주일	21		3
22		119:113-176	22		27	22		4:1-5:10
23		120-125	23		28	23		5:11-7:1
24		주일	24		29	24		7:2-16
25		126-132	25		30	25		주일
26		133-137	26		31	26		8-9
27		138-140	27		32	27		10
28		141-143	28		주일	28		11
29		144-146	29		33	29		12
30		147-150	30		34-35	30		13
31		주일	31		36			

2022/10			2022/11			2022/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신명기	1	01	여호수아	1	01	마태복음	3-4
02		주일	02		2	02		5
03		2	03		3	03		6
04		3	04		4	04		주일
05		4	05		5	05		7
06		5-6	06		주일	06		8
07		7-8	07		6	07		9
08		9	08		7	08		10
09		주일	09		8	09		11
10		10-11	10		9	10		12
11		12	11		10	11		주일
12		13-14	12		11	12		13
13		15	13		주일	13		14
14		16-17	14		12	14		15
15		18	15		13	15		16
16		주일	16		14	16		17
17		19-20	17		15	17		18
18		21	18		16-17	18		주일
19		22	19		18	19		19
20		23	20		주일	20		20
21		24-25	21		19	21		21
22		26	22		20	22		22
23		주일	23		21	23		1
24		27	24		22	24		2
25		28	25		23	25	성탄절	주일
26		29	26		24	26		23
27		30	27		주일	27		24
28		31	28	요엘	1	28		25
29		32	29		2	29		26
30		주일	30		3	30		27
31		33-34				31		28



####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기획위원 김진우, 박호현, 방승호, 배연택, 배혁, 조기현, 조선형

이보영, 유혁재,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히금숙, 조윤희❖ 편집문의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김기천, 류재덕, 조기현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CA)

#### ❖ 주일 칼럼

안성욱 목사 (참빛 중앙교회, Korea) 정상용 목사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CA) 송상철 목사 (애틀랜타 새한교회, GA) 주병열 목사 (샬롯츠빌한인교회, VA) 권율 목사 (김해푸른숲교회, Kore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